

대구광역시 일보

대구 0~9°C 포항 1~10°C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제 2896호 단기 4336년(음력 11월 8일)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올해의
수확이 많이 받으셨나요!!



본점: (053) 611-6205
달성지점: (053) 623-1752
화원지점: (053) 635-5100
다사지점: (053) 591-1780
대실역지점: (053) 591-7240
현풍지점: (053) 611-6203

달성축산업협동조합

고령의 명품쌀 고령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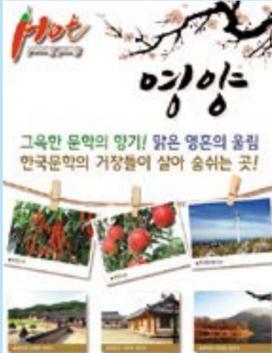
2009년 경상북도 최우수브랜드 선정
2010년 영남대 우수브랜드 선정
2014년 경상북도 최우수브랜드 선정



모형몰: www.gmall.co.kr
고령RPC: (054) 955-9512
고령농협기술센터: (054) 950-7311

영양

그속한 문명의 밑거름! 맑은 영혼의 울림
한국문명의 거장들이 살아 숨쉬는 곳!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달**

산주 조합원과 더불어 미래의
녹색성장을 산림조합이 함께
이끌어 갑니다.

조합원의 자격조건

-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영양군산림조합

전화: (054) 682-8476-7
팩스: (054) 682-3413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2015년을 부탁해”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띠의 해를 시흥 앞두고 올해 마지막 휴일인 28일 강원도 대관령 양떼목장에 여행 온 여행객들이 양들에게 건초를 먹여주는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반인리

맛, 품격, 영양, 품백,
가족건강 최고

(054) 749-9999 / 010-9575-9999

오늘의 Hot

대구,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율 ‘거짓 투성이’
수급자 56.4% 실상 44% 불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대명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 알려진 기초연금의 실상을 알린 뒤 정부와 대구시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56.4%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들 중 93%에게 20만 원 전액의 기초연금을 수급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44%의 어르신에게 2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지급 중이다.

지역별 기초연금 지급율도 문제다. 만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중구가 18.4%로 가장 높았으며, 달서구가 9.4%로 가장 낮아 무려 두 배 차이(중구, 동구, 서구, 남구는 고령사회 수준)가 났다. 기초연금수급율은 서구가 77.9%로 가장 높고, 수성구가 58.8%로 가장 낮아 구·군간 편차가 19.1%나 차이 났다.

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단체에 큰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많은 대구시민들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0만 원 모두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 정부의 빠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김천 홍수와의 인연 끊겠다”
이철우 의원 특별교부금 7억 확보

새누리당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김천 지역 하천정비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아포음 국사리 식생 옹벽 설치비 3억 원과 대항면 향천 세천 정비 사업비 2억 원, 김천 무안천 정비 사업비 2억 원 등이다. **최규복 기자**

본사 인사

■ 편집국 경제부
△ **황보문옥** 부국장대우
의원면직

DGB ATM기 계좌번호 노출... 범행 이용 우려

카드만 있어도 계좌번호 알 수 있어
대출미끼 사기업체 기승에 속수무책

지난 26일 낮 12시 19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강모(47·달서구)씨는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휴대폰을 아예 꺼버렸다.

강씨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급성백혈병으로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지만 돈이 없었던 그는 한 대출사이트를 통해 4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대구은행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빠른 등기로 보내주는 것과 3% 상환이 조건이었다. 돈은 카드가 도착하는 즉시 입금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휴대폰으로 부터 문자가 왔는데 내용은 3000만 원이 대출됐다는 것이다. 급히 상황과 약에 나섰으나 대출업체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강씨는 “카드와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통장 계좌번호까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잔액조회와 거래명세서 등에도 계좌번호가 나와 있지 않아 방심했던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

최근 체크카드(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조건에 대출을 해주는 신종 사기업체가 서민들



거래내역조회 후 확인

을 울리고 있다. 알고 보니 일부은행의 ATM기에서 계좌번호를 알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죄였다.

27일 오전 11시 42분께 대구 중구 대구은행 동성로지점의 7대의 ATM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거래를 위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현금을 찾는 경우였으며, 일부는 누군가에게 돈을 이체했다. 통장의 계좌번호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거래명세서에도 없었으며, 잔액확인을 할 경우에도 통장의 계좌번호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곳은 예외였다. 바로 거래내역조회였다. ATM기 7대 모두 거래내역조회를 확인해 보니 이것이 통장 계좌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곳이 아니다. 다른 지점의 대구은행 역시 대부분의 ATM기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하면 그대로 통장 계좌번호가 보였다.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에서도 상당수의 ATM기에서 거래내역조회 시 통장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급여통장을 비롯해 모든 은행거래를 대구은행으로 한다는 김수연(33·신암동)씨는 “실마 ATM기에서 계좌번호가 모두 노출될 줄은 몰랐다”며 “이런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고객의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의심스럽다”고 했다.

고객의 은행거래 편의성을 위해 개발된 ATM기는 온라인으로 연결돼 모든 은행거래가 가능하다. 즉 ATM기의 보안에서 비롯된 거래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거래명세서, 잔액확인 등 모든 곳에서 계좌번호가 보이지 않는 이유 역시 고객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고객의 계좌번호를 가상번호로 보이게 하는 이유 역시 이런 것에서 비롯됐다. 결국 ATM기에서 고객의 계좌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면 금융범죄는 그만큼 더욱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TM기를 개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모든 은행거래가 계좌번호로 이용되기 때문에 은행에선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계좌번호가 유출될 시 통장을 바꾸는 이유도 이런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실크로드거점지역 터키에 농자재 수출

경북도, 중소수출기업 10개사 참여
계약450만 달러, 상담1100만 달러
연 50회 중소기업 500여개사 계약

경북도는 실크로드거점지역 터키에 경북도내 우수 중소 농자재 기업들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최대 농업 전시회인 'Growtech Eurasia 2014'에 참가해 총 399건의 상담을 통해 계약 452

만 달러 수출상담 1093만 달러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린아그로텍(경산 곤충성페로몬트랩), 다인산업(예천 과수유인자재) 등 도내 농업 관련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해 열띤 수출 상담을 벌였으며, 경북기업관을 구성해 30여종의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기업별 바이어 30여 명이 부스를 방문,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수출조사기업인 다인산업(과수유인자재)의 경우 농자재관련 현지 바이어가 전시회 기간 3일 동

안 방문해 상담 및 직접 과수현장을 안내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고, 다음달 13만 달러 계약을 앞두고 있다. 부직포 기계를 생산하는 ㈜부광테크의 경우 카본 화이버 생산 라인을 희망하는 바이어가 직접 공방까지 찾아와 미팅을 가지고 다음달 150만 달러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개최된 이스탄불경주세계 문화엑스포 행사로 한류열기가 북상하며 확대된 터키시장을 통한 실크로드 국가 공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 한해 총 50여 회의 수출마케팅사업에 500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해 계약 5419만 달러, 수출상담 2만 755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김성용 기자**

지난 4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40년의 미래를 열어 갈 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합니다

☑ 삼성, 포스코와 손잡고 제조업 혁신 3.0 시대를 열어 갑니다
☑ 전통문화와 농업도 융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한민국 창조산업단지의 요람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정혁신과 업종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스마트공장 확산, 신산업 창출을 통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세월호·문건유출에 1년 내내 ‘곤욕’…외교는 ‘성과’

취임 2년 차대통령

세월호 후폭풍에 경제성과 가시화 미뤄져 남북 경제 협력…외교행보는 꾸준히 진행

취임 2년차 들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표방하면서 국정을 시작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

지난 4월 터진 세월호 참사는 이후 상처를 봉합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됐고 연말을 앞두고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며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올 한 해는 황금 같은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채 길 길 급한 3년차를 맞닥뜨리게 한 아쉬운 순간들로 각인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속에 경제살리기도 ‘우선 멈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국정 화두는 경제였다. 이어 2월 25일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구체화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내세웠다.

올해부터 임기 내인 2016년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행에 옮기므로써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실현하는 이른바 ‘474’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또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목표로 규제완화 의지도 강조했다.

이는 어느 정도 실행단계로 접어드는 듯

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말 ‘생중계 끝장 토론’ 형식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주무부처 장관들을 앞에 두고 규제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뜻밖에 터진 세월호 침몰사고는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색과정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부조리에 더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청와대의 태도 등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결국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후 박 대통령은 한 달여 만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를 선언하고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안대희·문정국 총리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하면서 끝내 사고 책임 차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 총리를 유임시키는 등 인사개편도 녹록치 않았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7·30 재·보궐선거의 여당 승리를 통해 어느 정도 박 대통령이 부담을 털어내는 듯했다.

또 일단 해외순방과 함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단 출범 등 규제개혁·창조경제 행보를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국정동력을 정상화해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세월호 3법’도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터진 ‘비선실세’로 불려온 정윤희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정치권을 또다시 격랑에 몰아넣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의혹을 ‘짜라시(사실정보



세월호참사에 눈물 흘리며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

지)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청와대 문건의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또 이번 의혹을 통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조용천 전 청와대 공직기감비서관의 갈등이 수면 위

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정세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권력암투를 벌이는 모양새로 비치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통일준비’에도 남북관계 개선 없애…활발했던 외교행보

다사다난했던 ‘내치’ 외에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비롯한 대외행보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우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통일대박론’을 주창하면서 통일 논의에 불을 지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데 이어 대국민담화에서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통일준비에 나섰다.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데 이어 같은 달 독일 드레스덴 방문에서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3대 제안인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통일준비위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 논의 등이 이어진 가운데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이 이뤄지며 남북관계 개선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또 북측의 방남 이후 박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남북관계의 해빙 여부가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결국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빌미로 남북고위급 접촉을 거부한 것은 물론 유엔 인권결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는 커다란 진전 없이 연말을 맞게 됐다.

외교분야에 있어 박 대통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행보를 펼쳤다. 특히 1월 다보스포럼 참석을 겸한 인도·스위스 방문을 시

작으로 3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와 독일 국빈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4월에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 5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등에 이어 7월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외교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다자외교 일정을 이어나갔다. 9월 캐나다 국빈방문 및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중 회담을 통해 ‘유엔외교’를 확장했다.

10월에는 이탈리아를 방문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하는 한편 11월에도 중국·미얀마·호주를 연쇄방문하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G20(주요 20개국) 등 바쁜 일정을 이어나갔다.

특히 중국 방문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경제영토를 확장하기도 했다. 다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일 관계는 취임 2년차가 끝나 가도록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없이 한 해를 보낸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다소 관계 진전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 11월에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정권의 우경화 흐름은 여전히한 상태이고 위안부 등 과거사문제에 대한 일측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한일 관계는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문재인



박지원

새정치연합 2·8전대 ‘서막’

문재인·박지원 의원 양강구도 최고위원 경선도 열기 뜨거워

새정치민주연합 내년 2·8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새정치연합은 29-28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7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다. 이어 2월 8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한다.

◇차기 당대표는 누구?... ‘文·朴’ 양강구도 2·8전대의 최대 관심사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다. 차기 당대표는 2016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 대선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최근까지 ‘박3’(문재인·박지원·정세균)의 3강 구도에서 정세균 의원이 지난 26일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양강구도로 재편됐다.

당내 안팎에서는 사실상 당내 최대 계파의 친노(친노무현) 수장인 문 의원의 독주체제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범친노로 분류되는 정 의원의 불출마로 지지층이 문 의원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 관측도 내놓고 있다.

문 의원은 2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공식화 한다. 문 의원은 출마기자회견에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이유와 이번 전대의 방향, 당 혁신 방안, 2017년 정권교체의 의지 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박 의원(31.1%)이 문 의원(24.4%)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다.

박 의원 측은 친노 결집에 대한 반작용이 큰 가운데 광범위한 비노와 호남 쪽 표심이 박 의원에게 쏠릴 것으로 예측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박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강한 야당, 통합대표로 반드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대표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대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지만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 의원에 대한 견제구도도 날렸다.

양강구도를 깨기 위한 비주류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박3’의 불출마를 촉구한 서명파 등 비주류 측은 문·박 의원의 대항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폭발력을 가진 제3 후보를 만들어 정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고위원 정탈전도 ‘치열’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도 열기가 뜨겁다. 이번 전대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총선을 이끌 지도부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내부경쟁은 치열하다.

현재까지 최고위원 경선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정정래·오영식·주승용 의원 등이다. 29-30일이 후보자 등록일인 것을 고려하면 막판까지 출마를 놓고 눈치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전병헌 의원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서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희 의원도 고민 끝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종 에어아시아機 탑승 한인3명, 일가족 추정

정부 “여행·단기방문 아냐” 최근 인도네시아 일정 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간 사람들

28일 교신이 끊긴 에어아시아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3명은 일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탑승한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 중 한국여권 소지자가 3명이고 이들은 가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인 탑승자 30대 남성 1명, 30대 여성 1명, 유아 1명의 신원과 관련, “이들은 여행이나 단기방문은 아니다. 주재원도 아니다. 인도네시아에 오래 거주한 교민도 아니다”라며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일정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가신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들이 왜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는지는 모른다”라면서 “인도네시아 체류 목적으로 나갔다고 주변인들이 알려왔다. 인도네시아로 간 지 2개월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후 5시 현재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해군과 공군이 실종지역 인근

에서 수색작업 중이지만 아직 잔해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국민 3명 탑승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색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국 호주 외교장관도 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하고 호주 정부도 관련 수색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여동안 서

울 외교부 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총영사와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수라바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파견기로 했다. 또 인근 공항에서 추가로 1-2명을 더 파견기로 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군 초계기를 파견해 수색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현지시각 이날 오전 5시35분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떠나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QZ8501편 여객기가 오전 6시17분께 자바해 상공에서 자카르타 관제탑과 교신이 끊겼다.



국회, 29일 본회의서 130여건 처리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해외자원의외국 국정조사 요구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처리 예정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해외자원의외국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한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3법’이다. 장기간 진통을 겪어 온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되면서 꺼져가던 주택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해외자원의외국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또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신청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이상 여당 추천), 권영빈·류회인·김시중·최일숙·김진(이상 야당 추천) 등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상정됐다.

뉴스스

‘사이버테러방지법’ 놓고 총돌

與 “원전정보 유출 조속 처리 촉구” 野 “국정원 권한법 강화 강력 반대”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28일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이른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실제로는 국정원의 권한을 범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날로 정교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위기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국가적 역량을 신속하게 결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9일 인터뷰에서 열린 '건설산업 기살리기 심포지엄 및 건설인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8곳 지정
경북, 평생교육, 사회복지, 치매
제과제빵, 친환경농업 등 다양

경북도는 지난 17일 도청 제3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24곳을 신규 지정했다.

도는 신청기업의 사업내용과 건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종가능성,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해 지난 8월 14곳 지정을 포함 올해 총 38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3년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하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영위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와 제품홍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박람회, 홍보운영관 참여,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전문지원기관의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신규로 지정된 기업은 치매연구 및 장애, 문화예술, 전통음식 체험 및 관광, 제과제빵, 식품사업, 장애우를 고용한 자동차 부품 등 인가공, 방과 후 학교사업, 평생교육, 고철, 건설업 등 재활용수거사업, 주말농장 운영, 친환경 농산물물재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도는 2018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 800개(사회적기업 300, 마을기업 150, 협동조합 350)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편익 및 정보제공을 위해 찾아오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현재 도내 198개(예비)122, 인증 76) 사회적기업이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34개 기업 68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2015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시군	지정단체(기업)
포항시	주식회사 씨니
포항시	(주)한사랑푸드
포항시	(주)해피크리닝
경주시	경북치매연구협동조합
경주시	(주)경주제과
안동시	안동여성영농조합법인
안동시	문화지킴이기술자모임(주)
안동시	(사)안동바름키움터
안동시	(주)큐브앤씨
구미시	미래정책협동조합
영주시	성심사회복지재단마리스타
영주시	소백로컬푸드협동조합
영천시	영농조합법인 소생로컬푸드
상주시	주식회사 토리식품
문경시	하늘씨협동조합
문경시	이레건설(주)
경산시	(주)스마트인디지탈
경산시	(주)유스마일
영덕군	농업회사법인(주)영덕주조
청도군	(주)영남건설
성주군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시설지원센터
예천군	그린에듀텍영농조합법인
예천군	영농조합법인연자방아친환경쌀
울진군	(주)밀동구리

경북도, 소방장비 보강에 300억 원 투입

소방장비 보강예산 230% 증액
향후 3년간 총 1000억 원 확보
노후소방장비 개선... 전면 현대화

경북도는 내년에 부족하거나 노후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5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부족하거나 노후된 소방장비 개선비용으로 총 3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투입예산 130억 원 대비 230%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방차량 120대 보강 134억 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50억 원, 구조장비 보강 62억 원, 구급장비 보강 18억 원, 항공 및 통신장비보강 11억 원, 기타 화재진압 장비 보강 등에 25억 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해 소방장비를 현대화한다.

한편 경북도는 2014년 올해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총 170억 원을 투입했으며, 경북도 소방차 노후율은 17.2%로 전국의 21.2%보다 낮다.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골든타임 안에 재난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소방차 46대와 구조구급장비 등 9300여점을 보강했다.

대규모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헬기 물탱크 교체 예산 3억 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해 수리완료 했으며,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추진 기간 동안 도내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소방력을 집중 배치해 초동 화재진압 태세를

확립하고 다중 출동체계를 갖춰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예산규모(2014년 : 170억 ⇒ 2015년 300억)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비교증감	비고
계	16,733	29,833	13,100	78.3% 증가
국비	6,801	10,793	3,992	58.7% 증가
도비	9,932	19,040	9,108	91.7% 증가

2015년 SOC 사업추진 속도낸다

2015년도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긴 15개지구 443km 개통

경북도는 도로·철도망 등 SOC 구축에 국가 예산을 집중 건의한 결과 도로 철도 함안 등 SOC분야에 사상최대 6조 3243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 2015년도에도 도내 도로·철도망 등 SOC사업이 탄력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올해 확보한 국비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도로분야 3조 1천억 원, 철도분야 1조 7천억 원, 함안 산업단지 등에 1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나 주요 SOC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함안 등 주요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가 그동안 도내 전지역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에는 무려 15개사업장에 443km 도로망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도내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417km보다 더 긴 도로망이 경북도 관내에서 신규로 개통됨으로써 그동안 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U자형 개발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준공으로 동해안 고속도로 시대도 도래하게 된다. 동서화합을 위한 88고속도로도 총2조 1300여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내년도에 3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철도분야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며 KTX포항직결선도 개통될 예정으로 있고 동해남부선에 이어 동해 중부선 철도 기공식이 지난 5일 울진에서 개최됨으로써 동해안 철도망 시대와 함께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에는 국도 사업도 7개 사업장이 완공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된다. 김천-교리, 쌍림-고령, 호계-불정, 풍기-도계간, 화양-풍각간, 감포-구룡포, 오천-포항시계 등 국도 현장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055억 원 중 1159억 원이 투입돼 신규개통을 위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도 용암-선남, 청도-경산 4차로 확장이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92억 원을 투입 추진 중이며 지방도 사업으로 청통-신령, 금호-대창간 2개소도 내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내년에는 총 15개 노선 443km에 달하는 도로가 준공과 함께 신규로 개통되면 교통의 오지 경북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16년과 2017년에 준공되는 대규모 사업들을 보면 고속도로 4개소, 철도 3개소, 국도 4개소, 국가지원지방도 5개소, 지방도4개소 등 모두 20개소 사업장에 543km가 완공될 예정이다

먼저 2016년에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준공돼 경북 동해안과 내륙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경부고속도로 영천에서 연양 간 확장 공사도 준공될 예정이다. 다인-비안 간 국도 등 4개소가 신규로 개통되고 동명-부계 간 도로 건설도 2016년 개통 예정으로 있어 대구와 전 원도시 군위가 활발한 동농교류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에도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이며 동대구-영천 간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에 이어 구미-경산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도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봉화-울진 간 국도확장 공사가 마무리 되고 농암-산양 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등 5개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향후 3년간 도내에서 신규 개통되는 교통인프라는 무려 986km에 달하며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왕복하고도 남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내 어디든지 2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북도는 지속적인 SOC망 구축을 위해 2015년도에 신규 SOC사업지구 12개소에 대해 예산 99억 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1조 원 이상의 성과로 지속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기리-교리간, 용궁-개포 간, 안동-영덕 간, 예천-지보 간 국도확장 6개소와 도곡-경정 간, 상원-청하 간, 울릉일주도로개량 공사 등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5개소, 경주 상구-효현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SOC예산이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는 어려운 국가 재정에도 불구하고 증액 된 것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사업비확보에 적극 나서 추진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낙후된 경북을 발전시키고자 힘을 모아주고 맡음이 현장을 지키는 도민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도내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도정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통팔달 녹색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성용 기자

경북, 행정심판청구 인터넷으로
1월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개통

경북도는 2015년 1월부터 행정심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행정심판 진행에 있어 청구인의 청구에서부터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그리고 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심판업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 년도인 올해에는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등에 기반시설을 구축해 내년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당분간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와 같이 종이서류를 통한 수기작업과 병행해 일정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편,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경북도농업인회관에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등 영남권 6개 행정심판위원회 및 시군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재결로 도민들의 호응을 받아왔는데,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 도입을 기회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도에서는 앞으로 계속 도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할매·할배의 날'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 배운다

12월 '할매·할배의 날' 결연
경북도, 칠곡군, 성가양로원,
동명초교 4자 상호협력 다짐

경북도는 지난 27일 '할매·할배의 날'을 맞아 성가양로원내 성당에서 손주 세대와 조부모 세대의 만남과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경북도와 칠곡군, 성가양로원, 동명초등학교 4자 간 상호협력 다짐결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관용 도지사, 백선기 칠곡군수, 고흥자 성가양로원장, 황병관 동명초등학교 교장의 결연증서 교환과 (사)코리아 파파로티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비올라 연주, 율동, 색소폰 연주 등 작은 음악회를 가져 행사 참석자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한편 23개 시·군을 비롯, 경북도의회(안동),



경북교육청(고령), 경북지방경찰청(경주)에서도 기관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양로시설, 학교와의 결연행사를 가져 '할매·할배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런 행사는 지난 10월 25일 조순간의

세대 공감과 소통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예전에서 가진 '할매·할배의 날' 선포에 따른 가족공동체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결손세대에 대한 관심과 연결을 통해 세대 간 격차문화 형성의 초석을 다진다는 취지로 추

진됐다.

'할매·할배의 날'은 민선 6기도지사의 공약으로 100세 장수시대에 노인 문제와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을 자녀와 함께 '할매·할배'를 찾아 뵙고 어른들의 삶의 지혜와 존경심을 배우고 소통하는 날로 만들기 위해 제정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내년 1월, 대구경북 8개 기관단체간의 '할매·할배의 날' 공동협력체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 및 대구 길거리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부터는 손주가 조부모님을 찾아가는 단계로 전환해 격대교육, 행사·이벤트, 공모전 등 다양한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결연식을 통해 세대 간을 이어주는 든든한 끈을 묶어 기쁘게 생각하며 1회성, 연례행사성 결연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할매·할배의 날이 세대 간의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올해 마지막 휴일... 고속도 곳곳 정체

유명산·스키장 인파 '복적'

올해 마지막 휴일이자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28일 전국 유명 산과 스키장, 놀이동산은 몰려든 인파로 복적였다.

서울 북한산에는 오후 3시 현재 1만 4400여 명의 등산객이 찾아 겨울 산행을 즐겼다. 강원 설악산과 충남 계룡산에도 각각 1만 5000여 명과 9000여 명이 찾아 설경과 함께 심신의 피로를 달랬다.

전국 유명 스키장에도 겨울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는 2만 5000여 명이 찾아 스키와 보드 등의 겨울스포츠를 즐겼다. 강원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도 1만 9000여 명이 방문해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슬로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와 서울 롯데월드 등 유원지를 찾은 시민들도 연말을 맞아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추운 날씨 탓에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는 12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징검다리 연휴를 즐기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정체 구간이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18만여 대, 들어온 차량은 20만여 대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32만여 대의 차



량이 수도권을 빠져나가고 34만여 대의 차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원휴게소-목천나들목 구간과 북천안나들목-안성분기점 구간 등 모두 29.57km 구간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나들목-서평택분기점 구간과 광명역나들목-금천나들목 구간 등 모두 12.68km 구간에서도 가

다량을 반복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선산나들목-상주터널북단 구간과 문경휴게소-문경새재터널서측 구간 등 모두 27.58km 구간에서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장평나들목-이천나들목 구간 곳곳에서 모두 22km에 걸쳐 정체되고 있다.

이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구

리)방향 계양나들목-송내나들목 5.67km 구간과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남이분기점-서청주나들목 6.38km 구간에서도 거북이 운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오후 3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5-6시께 정체가 가장 심해졌다가 점차 완화돼 오후 8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

대계 불법어업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

경북도는 본격적인 대계 조업철을 맞아 내년 1월까지 대계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계불법 관련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공조해 대계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기간 육상에서는 주요 우범항·포구를 집중 순찰단속이 실시되며 해상에서도 해양별 어선동향 및 조업정보를 파악해 불법어업을 차단한다.

도 관계자는 "동해안 특산물인 대계 보호와 함께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을 사전차단해 준범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형태를 과거 단순 생계형이었다면, 지금은 포획·유통 등 조직망을 갖추고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불법조업과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대계 생산량이 감소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도 이상숙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 확립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

대구 함지산서 산불...

소나무 500여 그루 소실

27일 오전 9시2분께 대구시 북구 노곡동 함지산 등산로 인근 8부 능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임야 0.3ha와 소나무 500여 그루를 태워 구형 추산 680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다. 이날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헬기 2대, 임차헬기 3대 등 5대가 동원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등산객 실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종관 기자

대구·경북 건조한 날씨 지속... '화재 예방 주의'

27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매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낮 한 때는 구름이 많았으며, 일부 경북북부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아침까지 기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구미 5도, 안동 4도, 포항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다.

대구기상대 관계자는 "건조특보와 한파특보로 화재예방과 수도관 동파 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이날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해상에서 0.5m~2.5m로 일겠으며, 미세먼지는 보통(일평균 31~80µg/㎥) 수준에 머물겠다.

지우현 기자

전통시장서 콩나물 1천 원어치도 카드로 산다

서울 유명 전통시장, 교통·신용카드 사용 가능해져

앞으로 서울시내 전통시장에서는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카드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린 후 1시간 이내 그 교통카드(티머니 또는 후불교통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구매금액에서 1000원을 깎아 준다.

서울시는 △마포구 망원시장 △강동구 길동시장(강동구) △관악구 신원시장 △도봉구 신창시장 △서대문구 영천시장 △성북구 정릉시장 등 6개 시장으로 시작으로 2018년까지 서울시내 330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물론 티머니형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많이 없는데다 수수료 등의 이유로 카드 소액결제를 꺼리는 상인들이 많았다.

카드사용이 힘들다는 점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티머니나 후불교통카드를 대기만하면 결제가 되는 RF방식의 간편결제 단말기를 점포에 비치해 빠른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단말기는 한국스마트카드가 6개 시범시



장에 우선적으로 600여 대를 보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5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마트 등 대형가맹점 위주로 제공되던 '무서명 거래방식'을 도입해 편리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도 늘려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버스·지하철 하차 후 1시간 내 해당 교통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물건값에서 1000원을 즉시 환승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 방문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티머니, 후불교통카드에 저장된 교통환승정보를 단말기가 자동

인식, 교통과 전통시장의 결제가 하나의 교통카드로 처리되는 방식을 활용했다.

서울시는 상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서비스도 강화했다.

먼저 6000원 이하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평균 1.5%)의 70%를 시가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원 대상기준을 1만 원으로 대폭 늘려 천원단위 소액에 대한 카드 결제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신용카드사마다 들쭉날쭉했던 결제대금 입금일을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일괄 취합해 한 달한시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도입, 그동안 일 단위 매출관리가 어려웠던 상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한국스마트카드는 6개 전통시장에 간편결제 단말기 600대를 우선 보급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드 결제를 도입하는 상인들을 위해 통신비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준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대표적 취약점였던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하고 카드결제를 확대 및 활성화할 것"이라며 "간편 카드결제 방식을 통해 전통시장의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민과 상인이 서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경주시, 음주운전 직원 두 달만에 승진 '논란'

경북 경주시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직원을 두 달도 안 돼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최근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고 근절을 위해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경주시는 지난 24일 김모씨 등 7급 23명을 6급 담당으로 승진 내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등 경찰에 적발돼 경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견제 징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승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자중하는 차원에서 한 두 번은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징계받은 직원을 얼마 안 돼 바로 승진시키는 것은 인사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직원이 경상북도에 소청을 제기해 불문(경고)으로 감경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경북도의 경우 불문(경고)도 징계에 해당돼 인사평정이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윤용찬 기자

기업의 활력한 핵심
창조자는 Value Creator

www.kdit.com

수용한 중소기업의 역량, 신용보증기금이 동행합니다

I'm C.E.O with K-DIT

신용보증기금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적인 경영지원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뤄지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하겠습니다



대구시 2015년 주요 도로건설사업 '순항'

산업단지 진입 도로건설 등 20개 사업 원활히 추진

대구시 건설본부는 지역 간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산업단지 진입 도로와 대도시 혼잡도로 개선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 등 20건의 도로건설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 중 올해에 개통(완료)된 사업으로 6건에 총 5232억 원을 투자해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달서구 대곡동(수목원) 외곽 도로를 연결하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2010년 6월 착공 이후 4년 5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됨에 따라, 대구시 서·남부 지역의 산업단지 통행시간 단축으로 창조경제 도시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산업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2013년 말 일부 개통한 신천외안 도로가 미 개통구간인 두산교 하부에서 신천대로까지 연결하는 하상도로 개통으로 가창-파동 IC-상동교를 연결하는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 병목구간 및 상습 지·정체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더불어 신서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각산역-반야월로-혁신도시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2012년 9월 착공해 올해 4월 중



순 전 구간 완전 개통(5개 노선 4.57km)으로 각산역에서 반야월로를 거쳐 혁신도시까지 하나로 연결돼 혁신도시 진입을 위한 핵심 노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안심로와 반야월로를 연계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발전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개통한 테크노폴리스로 김흥교차로와 달성1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김흥IC·달성1차산업단지 간 도로건설은 연장 1.280m, 폭 8m→20m로 확장해 달성1차산업

단지의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 90억 원 투입계획으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보상 및 공사추진 계획에 있다.

또 과학기술연구기반과 첨단산업의 신기술 융합으로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구지면 일원에 조성 중인 대구 국가산업단지 및 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연장 1.5km, 폭 27m)은 총 1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올해 5월 보상을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해 2016년 공사 준공 목표로 순조

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밖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서대구공단, 제3공단)계획에 따른 입주업체 물류비용절감 및 재생사업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진입 도로건설을 폭 20m·30m, 연장 2590m, 총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농공단지 진출입 도로는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동편 진입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폭 22m, 연장 160m를 2016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노후된 동대구역 고가교량의 개체 및 확장 공사는 총 사업비 1449억 원(연장 565m, 폭 48m-126m)을 투자해 현재 공정을 60%로 2016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준공되면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주변의 교통체계가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돼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총 사업비 688억 원(연장 647m, 폭 10m~32m)을 투입해 동대구역 동편에 건설되고 있는 성동고가차도 건설공사는 공정을 50%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과 더불어 (취신세계)의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2016년 하반기 완료되면 향후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연계와 복합환승센터의 쇼핑, 문화시설 확충으로 동대구역 일대는 대구 최고 비즈니스 복합중심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동부지역의 대구 관문도로인 대림육교-경산시계 간 광역도로 200m 구간도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해 폭 25 → 35m로 확장 공사를 올해 8월 착공해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습 교통정체구간과 병목구간,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대구세계육상로 건설공사 등 12건 총 2113억 원을 투자해 도로건설을 계속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로건설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지역경기 부양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치영 기자

도레이첨단소재(주), 구미 5공단 입주

부지 매매계약 체결·입주계약 완료

구미5공단 투자의 핵심인 도레이첨단소재(주)의 5공단 입주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입주계약체결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입주할 구미5공단 26만 9660㎡(8만평)에 대해 이달 1일 경북도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고 16일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구미시간 맺어졌으며 당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도레이첨단소재(주)의 입주계약 체결로 입주를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이다. 구미시는 일본 도레이사와 지난 2011년 6월 28일 투자양해각서(MOU) 체결하고 구미5

공단 투자와 관련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합동 투자유치단을 구성, 10여 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오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북도지사와 구미시장이 함께 도레이 본사를 방문, 닛카쿠 야카히로(日覺 昭廣) 사장, 스즈이 노부오(鈴井 伸夫) 부사장 등을 설득해 도레이첨단소재(주)의 구미5공단 투자를 최종적으로 이끌어 냈다.

도레이첨단소재(주)가 5공단에 입주하게 됨으로 구미시는 이 일대 20만평 규모의 탄소성형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어 구미시는 탄소성형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구미외국인투자지역에는 도레이첨단소재(주) 등 20개사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 343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3조 3353억 원의 생산과 28억 27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 도레이사의 입주로 탄소성형관련 국내외 전후방산업 협력업체들이 구미5공단으로 대거 몰려오게 될 것으로 구미시는 확신하고 있다.

남유진 시장은 "일본, 독일 등 부품소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글로벌 외투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겨울에는 발이 따뜻해야~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층 '미소페' 매장에서 다양한 길이의 방한부츠를 선보여 올미년 청담미 해돋이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방한부츠 외에도 해돋이 여행 준비를 위해 패딩점퍼, 털모자 등 방한제품들을 구매하는 고객층이 늘고 있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구미시, 道 中企 육성시책 평가 최우수상 수상

구미시는 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2014년 경북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 및 2014년 경북도 투자유치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구미시는 기업 애로사항을 한번의 접수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원스톱 처리시스템, 분야별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상담관제, 17일 1공무원 지원제도인 기업사랑 도우미제, 기업지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이버 지원센터 운영 등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또 한해동안 572개 중소기업 1272억 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했으며 IZB 2014(독일 폭스바겐 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해외시장조사, 해외지사화 등 해외 마케팅사업과 구미당김운동, 온라인 협업센터 운영 등 국내 시장개척 지원을 추진했다.

시는 신지식 교육, 인적자원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 녹색전환기술 지원 등 교육·기술·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자유치부문은 지난 한해동안 ㈜NPK, 루미너스코리아(주)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신규로 유치,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지난 9월에는 일본 도레이 본사를 방문, 도레이첨단소재(주)의 구미5공단 투자에 대한 최종 확정을 받아 26만 9660㎡(8만 1572평)에 대한 부지매입과 입주계약 체결 등 행정적 절차를 마쳤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국비 2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 수도권이전기업 1개와 관내 신·증설 중소기업 4개사를 지원하는 등 그간의 투자유치 공적을 인정받았다.

구미시는 전자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등 2015년도 국비예산 322억 원을 확보했으며 5공단 및 확장단지, 1공단 혁신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국방신뢰센터 유치,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미래이동통신 5G 테스트베드, 휴먼ICT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 등 미래먹거리사업을 선점하고 산업다각화를 통해 2015년에도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유진 시장은 "2015년에는 다양한 미래먹거리사업 발굴과 산업다각화를 통해 더욱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협치해 뛰어들 것"을 밝혔다.

김기환 기자

가스공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학계, NGO 합동 논의 통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3일 사외 교수,

NGO 대표 등 외부안전전문가를 초빙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차질 없이 수행함과 더불어 안전관리 수준 향상발전과 안전분야의 신기술 및 제도

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한 안전수준 향상을 기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정부 신설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가 마련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심층적 논의를 가졌다. 특히 올해는 가스공사 아현관리소 사고 20주기가 되는 해로 안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안전실천결의대회와 안전준수서약식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안전관리 주요 추진성과와 생산설비 안전성향상을 위한 주요 개선·보수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심의에 이어, 안전관련 제언사항을 공유·협의했다.



창업 성장의 전진기지 '청년 ICT창업성장센터' 개소

청년창업기업 성장 지원 위한 창업 성공의 허브 역할 기대

대구시는 북구(구)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 유류 청사에 '청년 ICT창업성장센터'를 29일 개소해 청년창업기업들의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공간 제공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ICT창업성장센터'는 대구시 북구 구암로 51번지 구(舊)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 유류청사 건물로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새롭게 조성했다.

'청년 ICT창업성장센터'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초기 창업자나 창업기업들의 창업공간과 자금 및 마케팅 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창업활성화 단계로 진입이 어려운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년 ICT창업성장센터'는 3인부터 7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창업 사무 전용공간 23실이 마련돼 있고, 각층마다 회의와 세미나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비즈니스룸과 휴게실이 들어서 있고 교육실, 창업전시공간, 운영사무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시제품개발을 위한 시설도 제공하고 기업의 마케팅, 멘토링, 세무·법률 상담 지원 등 청년창업 기업들을 위한 종합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센터가 조성된 이곳은 대구의 신흥

주거·문화지역으로 인근 구미산업단지 등 ICT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특성화 대학인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영진전문대학(철국캠포스)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또 '청년 ICT창업성장센터'를 통해 우수한 ICT청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ICT 분야의 새로운 창업 생태환경 조성과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키고, 청년 ICT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전 세계 경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들도 첫 출발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창업자에 불과했으며, 끊임없는 노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모여서 큰 기업이 탄생한 것"이라며 "청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꿈과 희망이 이뤄질 수 있는 센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치영 기자

외국관광객 첫 1400만 명 돌파

지난해 대비 16% 증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성장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12년 13.7%, 2013년은 9.3%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9일 오후 청주국제공항에서 외래 관광객 140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연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은 이날 1400번째로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 1400만 번째 입국자가 탑승한 항공기 승객 전원에게 향삼제품과 국산 캐릭터 상품 등 기념품을 준다.

여성그룹 '에이핑크'와 남성그룹 '빅스' 공연을 비롯해 사춤, 페인터즈:히어로 등의 축하무대도 마련된다.

외래 관광객 1400만 명 돌파는 세월호 참사와 연화 약제 등 대형 관광산업 악재에도 달성한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역시 중국인이다.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61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인이 230만 명, 미국인이 77만 명 등으로 예상된다.

중국시장을 제외한 외국 관광객도 807만 명으로 지난해 785만 명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홍콩(55만 명·38.4% ↑), 태국(47만 명·25.3% ↑), 중동(10만 명·23.5% ↑), 러시아(21만 명·22.2% ↑) 등이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일본은 연화 약제 효과로 올해 처음으로 1300만 명 이상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의 1400만 명 돌파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400만 명 유치로 세계 인바운드 순위 20위권 내 진입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는 22위였다.

1400만 명 입국으로 거둔 관광수입도 고무적이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관광수입은 176억 달러다. 지난해 145억 달러보다 21.4%(약 31억 달러) 늘었다.

관광수지 적자도 22억 달러 수준으로 2009년 12억 7000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관광 지출의



감소가 적자 축소의 원인이었다. 올해는 관광 지출도 사상 최대치(198억 달러 예상)를 기록한 가운데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김종덕 장관은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K팝 콘서트를 관광 상품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예기획사와 여행업체 간의 협업을 지원한

다. 아울러 기존 년별 공연 위주로 운영된 '공연관광축제(Korea In Motion)'가 '파리 음악 축제(Fete de la Musique)'와 같은 다양한 거리 축제 형식으로 확대한다.

중국어 가이드 질적 수준을 높이고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등 방한 중국시장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2015-2016년 한·중 관광의 해 기념사업,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 2015-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 2015 밀라노 엑스포 등을 계기로 마케팅사업에도 힘쓴다.

SKT·KT 4배 빠른 LTE시대 연다

1GB 영화 28초만에 내려받기

SK텔레콤과 KT가 기존 속도보다 4배 빠른 LTE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29일부터 소비자 체험단을 운영한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 band LTE-A'와 '광대역 LTE-A X4'를 선보인다. 이는 최대 300Mbps 속도를 제공, 기존 LTE보다 4배, 3G보다는 약 21배 빠르다. 최고 속도 기준으로 1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28초면 내려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3 band LTE-A' 유료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 평가단을 구성해 '갤럭시 노트4 S-LTE'를 한정 출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 평가단은 실제 전송 속도 측정과 전송 안정성 테스트 등 기술적 측면과 소비자 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내년 1분기 내 총 2만6000식 이상의 기지국을 순차 구축해 서울·수도권 및 전국 도심지와 전국 지하철 전 구간에서 가장 빠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존 LTE 요금제 그대로 '3 band LTE-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는 28일부터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



'광대역 LTE-A X4' 체험존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일반 대학생 고객으로 구성된 '광대역 LTE-A X4 체험단'을 운영한다.

고객들은 체험존에서 '광대역 LTE-A X4'가 적용된 삼성 갤럭시 노트4 단말을 통해 향상된 LTE 속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일반 대학생 고객으로 구성된 체험단은 속도와 품질 검증에 나선다.

KT는 전국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을 기반으로 전국 85개 시·군·구 지역에 퀘드 기술을 적용한 '광대역 LTE-A X4' 상용망 구축을 완료했다. 내년 1월 중 '광대역 LTE-A X4'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출시되면 본격적인 전국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통3사, 연말연시 고객유치 경쟁 '치열'

단말지원금 상향조정

이동통신 3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단말기 지원금을 크게 올리며 고객 잡기에 들어갔다. KT는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 엡지'를 포함한 12개 모델에 최고 84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신년맞이 올레 빅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갤럭시S5, 갤럭시S5 광대역 LTE-A, 갤럭시노트3 네오, G3, G3 cat6 등 5개 인기 모델에 최신폰인 갤럭시노트 엡지를 추가해 기본 지원금을 25만 원 이상 제공한다.

특히 출고가 106만 7000원의 삼성 갤럭시 노트 엡지는 2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순 완전무한 77요금제 기준)한다고 공시했다. 판매점의 단말지원금 15%(4만 500원)를 더하면 75만 6500원에 살 수 있다.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나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된 노트2, 갤럭시메가, 갤럭시S4 LTE-A, Vu3, G2, 베가아이언 등 6개 모델은 보조금을 출고가 수준으로 높여 사실상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

SK텔레콤도 내년 1월1일부터 갤럭시노트3에 대해 72만 5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동점 지원금 15%를 더하면 4만6250원에 가질 수 있다.

69요금제 이상 사용하며 LG전자의 G2, 35요금제 이상 사용 시 부3, 갤럭시S4 LTE-A를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 노트2도 최대 공시 지원금을 반영하면 할부원금 0원에 만날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도 출고가 88만 원의 갤럭시노트3 지원금을 65만 원(LTE8무한대 89.9 기준)으로 올렸다.



하이브리드車 100만 원 보조금 지급

환경부,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기존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감면이 추가로 1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출고일 기준)부터 경차 모닝(98g/km)보다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출량 97g/km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 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 차종은 △쏘나타 하이브리드(16인

차·17인차) △토요타 프리우스 △프리우스 V(출시 예정)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등 5종이다.

소비자는 개별소비·교육세(최대 130만 원), 취·등록세(최대 140만 원),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 매입면제(최대 40만 원) 등 최대 310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출고 받은 차량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구매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법

인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hybridbonus.or.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헬프데스크에 방문,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환경 정부는 지난해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14만 대를 보급했고, 오는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80만 대, 전기차 등 20만 대 '친환경차 100만 대 보급'이 목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0년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대비 연간 102만t 감축하고 연간 9000억 원의 석유소비 절감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1월 첫 시행...매월 30만원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내년 1월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하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다.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기준이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1·

II)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 지급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선 500억 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티목 전세대출'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



부실금융회사와 거래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못 받으신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배당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정이자를 못 받으신 분도 파산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http://m.kdic.or.kr>) 의 **미수형태도금 조회** 참조

▶ 안내전화 02-758-1004

[파산배당금]이란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공전을 말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대구

대구광역시보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8

중구 남구 동구 수성



임병헌 남구청장은 29일 남구 종합복지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햇빛평생대학 2학기 종강식'에 참석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29일 구청장접견실에서 착한나눔가게로 선정된 울진잡가자미 김영희 대표와 고기다 최무호 대표에게 착한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한다.

대구 에너지절약 업무 평가 동구, 최우수기관 선정

동구청은 2014년 대구광역시 구·군 에너지절약 업무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종합평가는 절전관련 혁신대책, 에너지절약 홍보,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실적, 주민단체등의 에너지절약 참여실적 등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구청이 가장 우수한 성적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동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녹색연합과 에너지절약 협약체결을 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녹색생활 에너지절약 문화운동'을 전개했다.

그 일환으로 에너지절약 녹색우수 아파트 선정,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교육, 에너지 절약 가드 캠페인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이번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택 경제과장은 "이번을 계기로 최근의 전력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녹색생활 에너지절약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지난 23-24일 양일간 연말연시를 맞이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을 통한 사랑나눔 문화조성을 위해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선린종합사회복지관, 대구안식원, 새별실버빌, 국우동 주민센터 등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 의료지원과 함께 불우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중부경찰서, 에텐요양원 연말 위로방문

쌀·휴지 등 생필품 전달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연말을 맞이해 서장, 경무과장 등 직원들이 모여 관내 에

텐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찾아 쌀과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중부서 직원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벗이 돼 드리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갑수 중부경찰서장은 "지금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이고 경찰에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요양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송종관 기자



안전사고 예방 "무엇보다 관심이죠"

남구, 주1회 야간합동순찰 전통시장 순화 홍보 시작

남구청은 동절기 및 연말연시를 맞이해 내년 2월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동절기 및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발생에 취

약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남구청은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적정온도 유지와 불필요한 전원제거 등 에너지 절약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추진사항은 소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토목·건축분야, 기타 기계설비 분야로 나눠 일상생활에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을 중

점지도 점검하고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령 등을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전통시장은 건물자체가 노후화 돼있고 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재난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우현 기자

금속노조,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성금 477만원 전달

남구청은 지난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의장 김수환)에서 대덕노인종합복지관장 집무실을 방문해 독거노인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477만 원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위에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을 위해 정성을 모았다"며 "일마되지 않지만 좋은일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정서 수여식

고용증대 분위기 확산 위해 마련

수성구는 지난 26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전년 대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지역 3개기업에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성구가 대구에서는 최초로 2013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고용을 활발히 증대한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창출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고용증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근로자 증가율과 증가율 등 고용성장성부문, 고용유지율 등 고용안정성부문, 기업수익성 등 기업경영특성 부문에서 종합평가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달구벌신용협동조합 △고산농협 △(주)삼성플러스관광 3개 기업이며 이들은 최근 1년 순수고용증가인원과 신규채용 등 지역 고용문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서와 인정패가 수여되는 물론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匾 주관 문화·체육행사 초청 △기업홍보 및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일자리창출에 노력하는 이러한 우수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 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연말 연시 같이 봉사해요" 동구, 종무식·시무식 간소화

동구청은 종무식과 시무식 행사를 간소화해 남은 경비를 모두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종무식을 간소화해 남은 경비를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찾아가 격려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료급식

에 사용한다. 또 2015년 신년 시무식에선 지역 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 직원들과 함께 떡국을 나누는.

한편 강대식 동구청장은 오는 29일 형식적인 행사 등을 줄여 마련한 비용으로 중증장애인을 위문하며, 31일에는 동구청 공무원 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떡국 나눠주기 봉사활동을 한다. 자유현 기자

수성구, 반 값 등록금 '현실화'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수강료 50% 장학금 지급 MOU 체결

수성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께 구청장 접견실에서 한국복지사이버대학과 수성구 주민에게 수강료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관·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수성구청과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이 손잡고 수성구 주민이면 누구에게나 수강료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장학제도 운영과 교육시설 및 교육 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은 2년제 사이버 대학

으로 청소년복지상담학과, 다문화보육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복지경영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경찰행정복지학과, 군사회복지학과, 심리상담치료학과, 독도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제 주민의 평생교육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며 "인생 100세 시대에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복지사이버대학(1644-9775) 또는 수성구청 평생교육과(053-666-4231)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현 기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 동구, 결의대회·캠페인 전개

대구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26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 방학과 졸업 등으로 청소년 비행과 탈선이 우려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선도·보호 결의대회 및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한해 동안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노력한 청소년 선도·보호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결의대회가 끝난후 동구청에서 출발해 큰고개오거리, 동대구역광장까지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도 전개했다.

이윤러 동구청과 동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및 담배 판매 등에 대해 매일 수시 지도점검중이며,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 등 예방 활동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대식 동구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꿈을 펼쳐나갈수 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유현 기자

DGFEZ
Gyeongsan Knowledge Industry District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Daegu-Gyeongbuk Free Economic Zone

지식산업의 집약지
경산지식산업지구,
DGFEZ의 미래를
환히 밝힙니다!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및
첨단 메디컬 신소재 산업의 허브
경산지식산업지구
Gyeongsan Knowledge Industry District
www.dgfez.go.kr | 투자문의 053)550-1951

대구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9

북구 서구 달서 달성



류한국 서구청장은 29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다.

경제는 어렵지만 마음은 따뜻해!!

북구청, 연말 나눔의 손길 줄이어
어려운 대구경제·따뜻한 대구시민

연말을 맞이해 북구청에 온정의 손길이 줄을 이어 매서운 겨울추위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구·경북에 사업체를 둔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대경상공회(회장 박순하)는 지난달 26일 북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으로 100만 원을 전달했고, 지난 12월 2일과 9일 관음동에 사는 주부가 28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경명여고 1학년 재학생 8명은 선생님과 함께 홀로노인 돕기 바자회를 열어 모은 성금 50만 원을 각각 전달했으며, 15일에는 익명의 독자가 110만 원 상당의 백미를 맡겼다.

또한 라이온스 제5지역이 라면 380박스, 서범운천(대표 양정수)이 현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지난 23일 매천동에 사는 황정훈, 황아람 남매가 그 동안 모은 용돈을 털어 280만 원 상당의 백미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맡겼다.

배 북구청장은 "대구경제가 어렵다고 할 하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는 전국에서도 최고일 것"이라며, "기탁하신 분들의 소중한 뜻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전달하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북구청은 기탁받은 성금은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고 백미와 라면 등 생필품은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 지역 저소득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송종관 기자



서구청 도시관리과 나눔봉사활동 '훈훈'

재능기부봉사단 운영 예정

연말연시를 맞아 서구청 도시관리과 직원 26명이 지난 26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을 찾

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직원들은 배식과 설거지, 자리안내 등의 급식활동을 펼쳤다. 또 직원들의 성금을 '행복서구희망나눔'에 기부하는 등 섬김과 나눔의 봉사 문

화 확산을 위한 행복한 걸음마를 시작했다.

최종은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사랑나눔 봉사활동은 작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나눔봉사 실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통한 재능기부봉사단을 운영해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힐링공간' 급부상

북구청 힐링밸리 서리지
조성사업→대구시 사업 '격상'
배광식 청장 수변생태공원조성
공약사업 '탄력' 받아...



도시철도 3호선 칠곡 차량기지과 인접해 있는 북구 동호동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이 대구 시민의 새로운 힐링공간으로 탄생한다.

지난달 10일 대구시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하 서리지 조성사업)'에 대해 시비 추가지원을 결정해 배광식 북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서리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리지 조성사업은 제방의 안전성 문제(2010년)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2011년) 그리고 북구 재정여건 등 난관에 부딪혀 2012년 6월 잠정 유보됐다.

그렇지만 북구청은 2012년 12월 1차 제방 누수차단 공사를 시작해 완료했으며, 지금은 2차 저수지 내사면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4차 저수지 외사면과 배수로 정비 공

사를 시작한다. 이에 북구청은 총 예산 14억 3200만 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제방 보수작업을 마쳐 서리지 제방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배광식 북구청장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 접근성의 제고와 함께 서리지 수변이 대구의 새로운 힐링공간으로의 가능성을 보여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선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제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풀기위해 북구청은 시에 예산 추가 지원을 요청해 이번에 26억2200만 원의 시 예산을 추가지원 받는 쾌거를 이뤘다.

2012년 설계 당시 서리지 수변생태 공원은 수변공원(4만9569㎡)과 공공용지(4만1005㎡)를 합해 총 9만574㎡의 사업규모로, 총 사업비가 65억200만 원(부지매입비:20억 원, 시설비:45억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시비(11억2600만 원), 구비(총 31억2500만 원-시설비:11억2500만 원+부지매입비:20억 원),

국비(22억5100만 원)로 구성됐다.

이번 투자계획(2015-2018년)은 2012년 사업비(65억200만 원)에 올해 지가 상승분 15억6000만 원이 증가돼 총 사업비가 80억6200만 원으로 증가됐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지가 상승분(15억6000만 원)과 시설비(21억8800만 원)의 시비 추가지원(총 시비지원:37억4800만 원)이 결정돼 북구청은 향후 20억 원의 부지 매입비만 부담을 하게 됐다. 시가 2012년에 비해 26억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한다.

북구청은 2016년까지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을 완료하고 2017-2018년에 돌래길, 수목·수변 관찰원, 습지원, 포토존 등을 설치해 사업을 마칠 생각이다.

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배 북구청장의 선거 공약사업인 서리지 조성사업이 환경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시설비만 지원받고 보상비는 지자체 부담이다"며 "이번 시의 추가 예산지원은 북구청의 힐링밸리 서리지 조성사업이 대구시 사업으로 '격상'된 것을 뜻한다"고 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지권과 협의해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구비 2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며 "구의회 의결청취와 협조를 이끌어 내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공원지정 절차도 불협 화음 없이 잘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송종관 기자

조원진 의원, 중앙119구조본부 19주년 기념식 방문

내년 소방장비예산 2000억,
소방안전교부세 3200억 등
노후소방장비·소방관 처우개선 강조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간사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의원은 지난 26일 대구 달성군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중앙119구조본부 창설 1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19특수구조대 등 안전 전문 인력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119구조상황실 및 훈련장 체험과 출동 준비상황과 훈련 참관, 구조대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원진 의원은 "시민의 행복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온 국민의 여망인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전문기관인 119구조본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내년도 소방장비예산 2000억 원 및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3200억 원 등 재원으로 부족한 소방예산을 보완해, 노후장비보강과 현장소방대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안전과 관련해 행

정 우선주의가 아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 조원진 의원은 119구조상황실에서 출동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기호흡기 및 화학보호복 착용, 수난구조 참관 등 구조훈련에 동참했다.

조 의원은 훈련체험과정에서 중앙119구조대원들을 격려하며, "평상시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특수구조대원 양성에 매진해 전국 어디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골든타임 내 구조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현재는 수도권 및 영남권 등 2곳에 있는 119특수구조대를 빠른 시일 내 2곳을 추가해 4개 권역으로 확립, 전국 어디에서도 신속한 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번달에 대구 달성군 구지면으로 이전, 국내·외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와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특수구조훈련을 전담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달성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사업보고 및 가족발표회 개최

달성군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통합센터에서는 지난 23일 여성문화복지

센터 강당에서 '2014년 사업보고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문오 달성군수, 김일규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및 각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일반가정, 다문화가족 등 200여 명이 참여해 2014년을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한편 달성군 건가·다가통합센터

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지원 및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한 가족상담·교육·문화사업 및 다문화 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추진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영식 기자

'도동서원 내일을 이야기하다 展' 열어

달성군은 '도동서원 내일을 이야기하다 展'을 2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군청 2층 참꽃갤러리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는 참꽃갤러리의 열한 번째 전시회로 도동서원 및 그와 관련된 분야별 유물 등의 사진 및 설명자료 30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도동서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해 도동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염원하고자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관람자에게는 도동서원의 모든 것을 담은 '도동서원 이야기'책자, 기념엽서 세트, 리플릿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도동서원은 돈암서원(충남 논산), 무성서원(전북 정읍), 필암서원(전남 장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 및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등재신청을 한 후 9월 현장 실사를 거쳐, 2016년 6월에 등재여부를 최종 결정 짓게 된다.

김영식 기자



우리 이웃의 따뜻한 금융
우체국예금



우편번호가 2014년 8월부터 적용됨. (054-2200) (054-2201)

우체국예금

경북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10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포항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9일 '2015 영덕 해맞이축제' 준비와 연말연시 시설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29일 찾아가는 보건소운영 7000명 째 진료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기자수첩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경주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2명, 6급 23명, 7급 21명 등 모두 64명을 승진 시키는 임용 대상자를 내정 발표했다.

대체로 될 사람이 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육에도 티가 있듯 근무평정, 공무원 근무연한, 현직급 승진 개월수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인사서열에서 1순위에 있던 직원이 탈락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승진 내정자로 발탁되다 청내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진 내정된 김모씨는 지난 6월 22일 음주운전(0.055) 적발로 경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공무원들이 피를 말리는 승진 경쟁에서 징계처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실로 크다 아닐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가장 중요한 근무평정이나 기타 성적 등에서 1위를 한 직원을 제치고 승진이라는 월계관(?)을 쓴 김모씨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 답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부터 나돌던 김모씨 출신지역인 안강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세력구축을 위해 김씨를 강력히 밀 것이라는 풍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인사라인과 그 외 중요 보직에 포진해 있는 안강출신 공무원들이 안강마피아를 조직, 세를 과시하고 있다는 소문과 이번 승진 대상에서 탈락한 1순위 공무원에게 다음번 인사 때 보장을 주겠다는 회유를 했다는 풍문은 '짜리시' 수준의 설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소시민들의 생각인 것을 최양식 경주시장은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음주운전 처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해 경북도 소청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징계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놨지만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인사에서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특혜를 누렸다면 이 또한 없어져야 할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人事)를 만사(萬事)라 한다.

윤용찬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현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 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립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2014학년도 울진 단기집중 영어캠프 개최

외사소통중심 글로벌 인재양성 목적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울진 관내 14개 초등학교 희망자 160

명을 대상으로 울진교육지원청과 남부초등학교에서 단기집중 영어캠프를 성황리에 실시했다. 영어에 관심이 많고 의욕적인 자세로 참여의지 뚜렷한 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캠프

프는 교사와 학생이 하나돼 모두 만족하는 알찬 캠프가 됐다. 봄-여름-가을-겨울을 주제로 4개 분야로 각각 나누어 순환수업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영어전담교사와 원어민교사 총4명이 한팀으로 구성돼 철저한 수업 준비를 통해 밀도높은 수업이 진행됐다.
김형삼 기자



울진, 생태문화관광도시로 주민행복시대 연다

울진군이 2014년 국정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생태문화관광 도시로 주민행복시대를 연다는 기치 아래 복지울진 구현, 소득증대, 건강도시 실현 등 군민들의 행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새해에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행정을 구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전략사업 유치 등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

울진군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울진건립을 지난 8월 정부로부터 확정 받았으며, 지난 4년 동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3번 탈락하고 4수 끝에 일귀년 성과로 1200여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립시설 유치로 국립해양과학연구소,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과 더불어 해양과학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됐다.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후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민소득 3-4만불 시대를 대비한 해양레포츠를 선도하는 동해안의 중심 해양레포츠 거점도시의 터전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다함께 잘사는 복지울진 구현

저소득층, 노인, 산림 등 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평해농공단지 기업유치,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일자리 연계와 고용촉진에 매진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로당 공동취사제, 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이동진료 등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



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내 군부 처음으로 시작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마을버스 운영, 전통시장과 연계한 어르신 버스 승차하 도우미제 운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로 자리매김 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3년 연속수상 등 10억 인센티브

와송 및 대봉갑 가공시설과 발효효소 가공공장 설립, 농촌체험관광 교육농장 조성으로 농업 산업화에 주력했고, 무인헬기 병해충 방제와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등으로 노동력 절감과 돈되는 농업육성에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 해안선 유지·보전을 위한 연안침식 정비사업, 연안 환경개선 사업,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어망·어구 보관창고 건립, 수산물 유통·가공·개선에 지원 등으로 수산 자원보호와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농산어촌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소득증대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원전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원자력발전량 1kwh당 0.5원에서 2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

로 노력을 기울여 입법 추진중에 있으며, 울진숲길 탐방로 및 대왕송 등산로 정비, 백암운전관광지구 경관개선사업, 수도 문화나라 조성, 울진관광 두레사업 선정 등 관광기반조성과 울진대계 축제, 금강송 송이축제, 단체관광객 유치, 울진 붉은 대계 관광열차 상품 등 운영으로 불경기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11개분야에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영예도 안았다.

2015 군정방향

△첫째,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복지 평생건강도시 실현 = 지역특성에 맞게 발굴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평해·죽변 농공단지 중 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확충과 방문보건 사업 확대 및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운영 등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평생건강도시 울진건설에 앞장선다.

△둘째,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로 주민 소득창출 기여 = 작은 도서관을 문화생활공간으로 바꾸고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전시·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 마

련과 금강송 에코리움, 왕피천주변 관광벨트 구축위한 순환레일, 생태공원·탐방로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종목별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성장 동력 창출과 인재육성으로 울진미래 준비 =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설과 후포거점형 국제 마리나항 조성 등을 통해 동해안 해양 과학·레저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교육 활성화와 영어체험 교실운영 등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대학생장학금지급, 장학재단 운영과 서울소재 울진학숙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자원자원을 활용한 살기좋은 농산어촌 만들기 = 토종 생물자원 이용한 발효식품 개발해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고추, 감자, 양파, 콩을 명품 브랜드화 해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강소농 확대와 울진금강송 브랜드 육성관리, 송이증산 환경개선사업과 산촌마을인산물 생산유통지원 등으로 산림자원 이용한 산업화로 소득창출에 매진한다.

△다섯째, 광역교통망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 동서5축 국도36호선 확장 및 동해중부선 철도 공사를 기간내 완공하고 남북7축 동해안고속도로 건설과 울진-봉하간 철도개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해 나간다.
김형삼 기자

영덕 “전통시장 달라졌다”



전통시장살리기도 평가 우수군 선정

영덕군이 지난 22일 경북도 주관으로 칠곡평산 평산아카데미에서 열린 2014년 지역경제 담당공무원 워크숍 실적평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부문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영덕군은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깨끗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시장의 장육문제 개선과 현대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상인교육과 경영 활성화 사업을 벌여왔다.

먼저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영덕군은 올해 도비와 군비 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5일장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시장 어물전 내 노후된 오수관로를 스텐배수로 교체함과 동시에 관로수정을 통해 오수 빠짐을 원활하게 해 청결한 시장개선을 위

해 힘쓰고 관로정비와 보온덮개설치, 지하계랑기 박스를 설치해 겨울철 한파 시 동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상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했다.

관내 가장 큰 시장인 영해시장에는 국비·군비가 지원된 사업비 3억 3300만 원으로 닭전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그간 미관이 좋지 않은 구 장육을 정비하고 옛날 먹거리 터전을 증축해 시장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서비스 개선과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대학 등과 같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경영 노하우와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에는 영덕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전설서비스, 마케팅기술, 홍보전략 등의 제2기 상인대학을 개설해 4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상인경영대학에서는 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영덕세무서, 영해세마을금고와 함께 소상공인세무 및 사업자등록신청관련 상담 등과 같은 세금 이해교육

과 카드단말기설치 상담을 펼쳐 단말기 설치율이 기존대비 15%증감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영덕군은 올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마케팅과 홍보활동에도 앞장섰다.

피서지이동시장운영, 영해농수산물대축제 개최, 조형물설치, 스마트폰과 연동된 앱(ICT 사업)개발, 품목별 상품진열, 예쁜색깔과 글씨체를 이용한 홍보(POP)시범지대로 상인들의 매출증가와 시장활성화를 꾀했다.

대계철을 앞둔 11월 경북도전시회, 전국박람회를 통해 영덕의 전통시장과 지역 대표 명품 브랜드인 영덕대계 알리기 홍보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청 우수시장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영덕군 전통시장 관계자는 “상주-영덕 간 동서4축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시설 최적화와 영덕만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에 더욱 힘써 다시 찾고 싶은 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건 기자

포항, 전력 수급 안전 도모 겨울철 에너지 절약 단속

문 열고 난방 영업 집중 단속

포항시는 전력 수급 안전을 도모하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위반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 제한이 공고됨에 따라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총 9주간 실시한다. 시는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한 후 2 다음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시청사 및 각 읍면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실내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전력 소모량이 100kWh를 넘는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력피크시간대 실내 평균온도 20℃이하로 유지하고, 영업 종료 후 후속외광 고물 및 경관조명을 끄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포항시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은 “가정이나 소규모 상점 등에 문풍지 붙이기, 전열기 사용 자제,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 금지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기 기자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11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영석 영천시장은 29일 오전과 오후 지역기업체와 영천시약사회로부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받는다.



경산 재능나눔 봉사단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경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지식으로 봉사활동 펼친 150여 명의 제1기 경산시 재능나눔 봉사단과 함께 '2014 경산시 재능나눔 봉사단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연 배움 체험 소통이 있는 학습의 장으로 구성해 공연의 경우에는 하재석 기타연주자의 '7080 추억이 담긴 기타 연주'를, 배움의 장은 힐링, 소통을 통한 행복 찾아가는 주제로 권민호 전문강사의 강연시간을 가졌으며, 체험의 경우에는 '영양플러스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체험을 권영선 강사와 함께 진행했다.

특히 봉사단원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봉사(기부)를 실천한 사례를 발표하는 소통의 장에서는 시민이 감동받을 수 있는 학습봉사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영조 시장은 "재능과 지식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의 활약으로 2015년에도 경산 시민의 희망에너지이자 유쾌한 주파수가 돼 개인적 배움을 넘어 재능기부 문화조성으로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수강생이 연간 13만여 명이 이르고 있는 가운데 매년 증가하는 시민 평생교육 수요에 대비해 재능 나눔문화 확산과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 '제1기 경산시 재능나눔 봉사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신경윤 기자

성주, 가야산 형제봉 일대 옥수수 공중 살포

성주군은 고병원성 AI로 연기됐던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지난 26일 가졌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매년 겨울철마다 실시해 온 행사로 산발전파용으로 입차한

헬기를 이용해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함준한 산악지대인 금수면 옥용산과 가야산 형제봉 일대 등에 공, 옥수수 350kg을 공중 살포했다. 성주군에서는 매년 겨울 실시되는 '야생동

물 먹이주기' 행사로 올해에는 특히 눈이 내린 관계로 부족한 야생동물 먹이를 공급해 야생동물의 생육에 도움을 주고, 부족한 먹이를 찾아 마을에 내려오는 야생동물의 출현이 줄어들게 함으로써 야생동물로부터 주민들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두상 기자



청도, 올해 군정성과 '주렁주렁'

국·도정 평가 30개 분야
시상금 6억8천만 원 받아
내년 국비 1077억 원 확보
각종 사업 탄력 받을 전망

청도군이 올해 군정추진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대외기관 수상실적과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윤곽이 드러났다.

대외기관 수상실적으로는 중앙부처와 경북도, 민간단체 등이 주관한 각종 분야별 업무평가에서 모두 30개 분야 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 규모만도 6억 8000만원에 달해 각계각층으로부터 군정추진 성과를 인정받은 매우 뜻 깊은 한해를 보냈다.

먼저 기획분야에서 2014년 전국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상과 고

부세 3억 명, 도정역점시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상사업비 1억4000만 원 및 포상금 8000만 원, 경북도 지방 예산 효율화 사례발표 우수, 경북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평가 우수를 수상했고 교육분야에서는 청도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경북도 평가 우수 수상과 2014년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사업비 1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주민복지분야에서는 2014년 경북도 자원봉사 시·군평가 우수, 기초연금시행관련 지자체 업무점검 우수,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우수를 수상했고,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청도반시축제가 2014 경북도 지원축제로 선정됐다. 또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국무총리상, 경북도 풍물대축제 우수를 수상했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우수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최우수, 경북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우수, 민원행정 추진평가 우수, 토지행정업무

평가 우수, 읍지연수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한적십자사 창립 109주년 기념 회비모금 유공기관 장려, 민원행정 추진 종합평가 장려,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 장려를 수상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청도반시나라특구 중앙우수지역특구 성과평가 장려 및 포상금 5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평가 우수, 경북도인일자리 경진대회 장려를 수상했다.

농업산림분야에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동상을 수상했으며,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의약관리사업 평가 우수, 식품안전의 날 식품위생관리사업 종합평가 장려, 경북도 식품바람회 종합평가 장려를 수상했다.

청도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청도 운문 터널건설 45억 명, 매전-건천간 국도개량 10억 명, 청도-밀양간 국도개량 15억 명, 동남-각

남간 도로건설 18억 명을 확보해 지역발전의 견인할 교통망 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신화량풍류체험벨트조성 80억 명, 한국코미디 창작촌 조성 40억 명, 청도읍성관광자원화 사업 10억 명, 국가산립교육센터 건립 34억 명, 동창천생태공원조성 54억 명, 청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억 명을 확보해 문화, 관광, 힐링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청도개발축진지구사업 61억60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0억 명, 남성현감꽃권역·삼계권역·살마리권역·유천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32억2000만 원, 청도읍, 풍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2억7000만 원, 삼계계곡 재난비상대피로 설치 20억 명을 확보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안전,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승용 청도군수는 "이러한 성과와 보람은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5만 군민의 힘이다"면서 "2015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구현을 위해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용규 기자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

영천, 2015 직제개편·인사단행
연공서열 탈피 능력 중심으로
첫 여성국장 배출, 소수직렬 안배

영천시는 2015년 직제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29일 연말 인사를 실시한다.

이번 인사는 민선6기 들어 첫 개편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성공모델로 남을 '위대한 영천'을 시민과 함께 써내려가겠다는 김영석 시장의 의지를 담은 직제개편으로 영천의 백년대계를 공고히 할 각종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일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성 위주의 기능 재편과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가 돋보인다.

영천시는 지난 7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과 직무분석, 시의회 간담회, 전 간부토론회, 타 시군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9일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인사에 즈음해 슬렁이는 내부 분위기를 조기에 불식하고 직원들이 업무공백 없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사일정을 최대한 앞당겼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영천시 최초의 여성국장이 배출됐다는 점으로 공직사회에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하겠다.

또 5급 승진요인이 행정직렬에 집중돼 있는 것을 환경·녹지 등 소수직렬에 안배하는 등 연공서열을 탈피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가 돋보인다.

전보인사도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별 인원이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본원칙은 존중하면서 사업부서 인력확충 및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에 중점을 두고, 6급무보직 및 여성공무원 균형배치, 장기근무·승진·징계자를 전보해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에 앞서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그 기능이 강화된 분야는 안전재난, 관광산업, 문화체육, 일자리 창출, 에너지 관리, 교통행정, 복지 분야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1월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을 안전행정부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했고, 경북도에서도 방재와 재해기능을 안전총괄과로 일원화함에 따라 영천시도 안전정책과와 치수방재과를 안전재난안전과(안전지역개발국)로 통합해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예방 기능을 총괄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일원화하고 강화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고민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인력 증원이 없이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해서 경제·관광·산업·건설 등 사업부서로 전진배치하고, 유사중복업무를 통합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시장은 "조직개편에 맞춰 이번 인사도 성과를 내는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성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염두에 뒀고, 무엇보다 역량을 갖춘 6급 주사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특별승급,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만 기자



고령, 공정!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 교육 실시

고령군은 지난 24일 대가야읍에서 90여 명의 회계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실과소·읍면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철의응답시간 등 구체적인 회계교육을 통해 회계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또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해

회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집합교육으로 공무원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어 줬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에 실시된 교육이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계교육을 통해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고령, 열피일반산업단지 내년 상반기 착공

개진면 직리 일원 6만 8000평
규모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령군 개진면 직리 일원에 22만 4254㎡ 규모의 열피일반산업단지가 동고령 일반산업단지에 이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주)보광산업개발 외 1개사가 추진 중인 열피일반산업단지는 29일 고령군으로부터 산업



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토지보상 후 2016년 준공 할 예정이다.

김양수 기자

영덕건설재사

T. 734-0874 P. 010-9900-5534

3월 이전 예정
(우곡리 의료보험관리공단 건너편)

시공사 : 금강 NIT(남정건축)
대표 이형직

TEL. 734-0874
H.P. 010-9900-5534

경북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12

‘강소농 만학의 배움’ 농업인대학 수료식

영양군농기센터 인재 발굴 집중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 2014농업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농업인대학은 농촌

진흥청 농업인대학 국비와 고추, 사과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군 사업비로 3개반 86명(사과 42, 고추기초 21, 비가림고추 23)이 수료하게 된다. 농업인대학 교육은 21세기 영양군 친환경

경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집중 교육하며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육성 목적에 두고 있다.

교육내용은 친환경농업실천 전문기술을 교육과 체험을 통한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병행해 농촌 자연의 자원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윤동 기자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영양

안동 풍천꽃감, 전통서 찾은 부가가치 창출

전통방법 고집해 품질 뛰어나 옛 맛 그대로 살린 ‘효자품목’

요즘 농업현장은 세계 각국과의 FTA협상과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위기감이 다시 한 번 상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 풍천면 신성·구호리에 가면 그 모범답안을 찾을 수 있다.

신성·구호리에서는 요즘 올 한해 정성을 들여 생산한 꽃감 출하가 한창이다. 전통방식을 고집해 생산한 꽃감 판매로 농가소득은 물론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제는 유명세가 지 특특히 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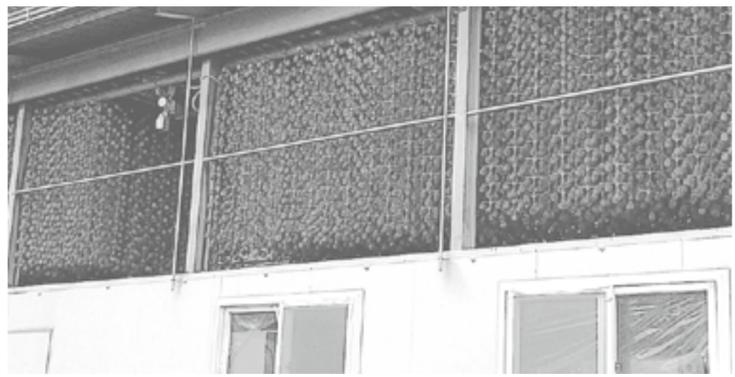
안동꽃감작목회(회장 김태식)에 속한 29농가에서 생산되는 꽃감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꽃감을 생산해 품질과 맛이 아주 뛰어나다.

김 회장은 “신성·구호리 마을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꽃감은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토양과 북서쪽이 긴 산으로 둘러져있는 천혜의 청정지역에서 조상대대로 재배해온 토종감나무에서 육질이 좋은 감이 대부분 생산된다”고 말했다.

또 “45일에서 60일간 덕장에서 자연건조하고 15일에서 20일 정도 후숙건조·숙성하는 과정은 선조 때부터 전수받은 안동지역만의 오랜 전통적 방식으로 요즘은 현대적 시설을 접목시켜 흰 천연당분이 표면에 나와 과육이 쫄깃쫄깃하고 질감이 부드러우며 씨앗이 적고 당도가 타지역 꽃감보다 높은 전통꽃감의 특징이 있어 제수용은 물론 선물용으로 고급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안동 풍천꽃감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이 지역 꽃감은 오선당꽃감, 안동신성세미꽃감, 오빠미꽃감, 상도꽃감, 안동신성큰집꽃감, 탐마을진꽃감, 안동하회마을꽃감 등의 브랜드로 직거래 판매되고 있으며, 사이버



안동장터(http://www.andongjang.com)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까지 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통을 지키기는 생산방식과 직거래 유통망을 갖춘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꽃감생산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서 농업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힌 생산농가의 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예천지구대 준공식 주민들 편의성 높여

예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오랜 숙원사업이던 예천지구대 준공식을 가졌다.

그간 기존 지구대는 1991년 12월 18일 청사를 신축한 이후 23년이 경과했고 방문 민원인과 치안수요 급증으로 근무 경찰관이 증원 됐으나 협소하고 노후한 사무공간으로 방문 민원인과 경찰관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신청사는 예천읍 효로 198번지 대한지적공사 예천군지사 옆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350㎡(105평), 건물면적 253.68㎡(76.74평)으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편의성을 최대한 감안한 설계와 시공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춰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천군민의 오랜 염원이던 이 사업은 이한성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으로 국비 8억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4년 9월 1일 착공, 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2월 26일 준공하게 됐다. 황원식 기자

경안농기계 이교섭 대표 안동에 농기계 무상 기증

경안농기계 이교섭 대표가 안동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국가별 FTA 체결과 농업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1000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안동시에 무상 기증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대표는 창업 이래 30년간 농기계 생산을 통한 과학영농의 꿈을 실현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연구로 오직 좋은 농기계 생산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농기계의 우수성을 인증받았다. 김용구 기자



영주, 이웃 위한 따뜻한 손길 잇따라

기관단체 이웃돕기 성금·성품 기탁

연말을 맞아 영주시의 기관단체들의 이웃돕기 성금·성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6년째 사랑의 쌀을 기증해 오고 있는 ㈜금북복지재단에서는 지난 23일에 쌀20kg 100포대를(시가 470만 원) 지역의 17개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장수면에 소재하고 있는 ㈜일진베어링아트에서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영주시를 통해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일진베어링도 매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성금기탁

등 지역사회 지원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한편 24일에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단체 및 개인들의 기부행사도 이어졌다.

대한불교천태종 신도회에서는 지난 21일 영주지역에서 영주를 찾는 여행객 및 시민들을 위한 동지 맞이 팔죽나누기 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 450만 원을 기탁했으며, 같은날 휴천3동 체육회 및 대성한후 대표 권오경씨가 각각 1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성품은 다음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쓰여진다. 전상기 기자

연말연시 추위 녹인다 예천 희망2015나눔 캠페인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철 추위를 녹이는 희망2015나눔 캠페인에 성금과 성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기계공업(주) 박장식 대표는 24일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지난 22일 (주)금북주 노상돈 안동지점장은 예천군을 방문해 쌀20kg 100포를 전달하며 관내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원식 기자

문경 하수도사업 국비 확보 큰 성과

가정 정화조 청소비용 절감 지하수·하천오염 방지 효과

문경시는 지역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 산양·산북지구 분류식 오수관거설치의 5개 사업에 내년도 사업비 171억 원(국비 113억)을 확보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신규사업으로 영순 사근리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지구에 총사업비 90억 원 중 15년 사업비로 16억 원(국비 11억)을 확보했고

계속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2지구에 113억 원(국비 79억)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0억 원(국비 15억),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2억 원(국비 8억) 등 15년 사업비 155억 원(국비 102억)을 확보했다.

문경시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업이 준공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오수관로에 직접연결 처리함으로써 각 가정의 정화조 청소비용 절감과 악취해소 및 지하수 및 하천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오재영 기자

중앙시장 소화기 배부·소화전 위치도 부착

문경, 화재취약시설 점검

문경시는 지난 17일 동절기 화재취약시설 중 한곳인 중앙시장에 소화기 15대를 배부하고 소화기 및 소화전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도를 부착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소화전, 소화기 등 방화설비를 점검·정비하고, 소방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못하도록 계도했으며,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

조그만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장 곳곳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소화기 및 소화



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도를 부착해 유사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를 발견한 시민 또는 상인들이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환 안전재난과장은 “소화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유사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물맑은, 고장 정직한 농부 예천 Yechoonsaem 새롭습니다 예천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경북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13

구미 김천
상주 의성
군위 청송



김영만 군위군수는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군위군 SNS 홍보단' 위촉식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9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14 군민과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에 참석한다.



2014 김천시문화상 시상식

교육문화체육 양희철, 지역개발 문창근

김천시가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크게 공헌한 모범시민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제19회 김천시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26일 시청 강당에서 가졌다.

박보생 시장을 비롯해 김병철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기관단체장, 수상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교육문화체육부문에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양희철 교수(남·55세), 지역개발 부문에 김천냉장 문창근 대표(남·60)가 각 분야 문화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보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돼 미래의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김천을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김천시문화상은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모범시민에게 주는 상으로 구 김천시와 금릉군이 각각 김천시민문화상(28명 배출)과 금릉군민상(5명 배출)을 시상해 오던 것을 1995년 시·군 통합후 김천시민문화상으로 명칭을 정해 5개 부문으로 확대해 수상해오다가 2003년 시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이후 2007년 김천시문화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해까지 18회에 걸쳐 5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지난 11일 각계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정됐다.

최규목 기자

청송양수발전소 상부댐서 "해맞이 함께해요"

청송 파천농수산악회는 '2015년 을미년 해맞이' 행사를 내년 1월 1일 6시 청송양수발전소 상부댐에서 연다.

이날 청송지역 해 뜨는 시간은 기상청 예정

시간 오전 7시 35분께로 행사는 오전 6시께부터 8시까진행하며 합창단과 성악 공연, 모듬북 공연, 대북 전진북의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한동수 청송군수, 이광호 군의회의장의 신

년 축하 메시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군민안녕 시산제를 지내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새 청송건설을 기원하는 만세삼창과 합창 및 군민들의 소망을 적은 소원지 풍선 날리기 등으로 을미년 해맞이 행사를 마무리한다.

이창재 기자



구미공단 재창조와 시민행복 실현

시민행복도시 중점 시정 추진

구미시는 2015년 시정추진 방향은 '구미공단 재창조 및 시민행복 실현'으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한해 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구미공단 확장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적기라고 판단,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인구 50만 시대의 큰 그림을 그리며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시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미공단 경쟁력 강화로 창조경제 선도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5공단과 확장단지 중심으로 구미 미래산업을 선도할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 1공단을 혁신단지 조성사업과 재생사업을 동시에 추진, 새롭게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 창조ICT융합 인재 양성, 3D 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구축, 미래이동통신 5G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미래 신산업 생산기술을 고도화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간다.

더불어 지역의 방산업체 기반 위에 현재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 중심으로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에 전력을 다해 구미를 ICT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고, 경향공기 이차특장 조성을 시작으로 항공전자 부품산업 특성화 단지를 구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R&DB 거점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금오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조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업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

특히 5단지 분양에 대비, 대기업 신수종 사업 진출과 정부의 신소재산업 육성에 따른 맞춤형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독일 연락사무소 설치 및 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IZB) 개최 준비에도 노력해 나간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 구미시는 시민 생활 곳곳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험·휴식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중심으로 범시민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2014년부터 대대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방범용 CCTV를 2017년까지 2천대를 추가 설치하고 여성·아동 안심귀가구역 확대 조성, 여성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도심 곳곳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구미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실버그린볼파크 등 다양한 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낙동강 구미 7경 6락 리버사이드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고, 우리나라 남부권에서는 전무한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을 설치하는 동라공원 레저스포츠시설 조성계획도 구체화된다.

△문화·관광 콘텐츠화 및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및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조성, 천생산성 주변관광공원화 등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 유산을 전승·보존해 나가고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스토리

텔링화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동지역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이미 착공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립박물관 조성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생가 주변으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박정희대통령 유품전시관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가 일대를 구미의 대표명소로 만들어 간다. 인허가 민원 맞춤형 상담 사전예약제, 지방세 취약분야 전문상담코너 및 부동산중개원상담제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으로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제1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제7회 국제교육도시연합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등 대규모 국제·전국 단위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남유진 시장은 "내년은 민선 6기 구미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과 소통하며 더욱 밝은 구미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43만 시민과 함께 해현경장(解絃更張)의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기환 기자

中 '구미 한국형제 경제발전 축소판' 화제



'중국 경제망' 구미 자세히 소개

중국 대표 경제포털사이트인 '중국경제망'은 지난 11일 '한국형 압축성장의 축소판'이란 제목의 기사로 구미관련 기사를 크게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기사는 지난 11월 22일 북경 라프레스 호텔에서 중국4대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구미시의 중국 4개 자매우호도시, 구미시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산업단지조성과 수출현황,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사업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구미가 한국형 경제발전의 축소판이고 세계명품도시 구미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미르네상스 시대를 적극 열어나가고 있다고 밝히는 등 중국내 구미에 대한 관심을 전했다.

특히 중국 경제망은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과 현 박근혜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도시이며, 한국 최초로 무선충전전기버스운행과 낙동강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낙동강 구미 7경 6락 프로젝트를 통한 탄소제로 녹색도시 건설을 자세히 소개했다.

올해는 많은 중국 고위층 인사가 구미를 다

녀갔다. 대표적으로 6월 차이밍자우(蔡名昭)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이 "로마를 가보지 않으면 유럽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고, 구미를 가보지 않고서는 한국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란 방문소감을 밝혔다.

9월에는 차이밍자우 주임의 특별지시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고급기자단이 구미 취재 차 방문, 10월에는 탕자쥬옌(唐家璇) 국무위원을 비롯한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특명전권대사, 외국인투자기업협회 부회장, 교통은행 부행장 등 고위급 인사가 대거 방문, 구미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구미시는 중국 공무원 또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형 압축성장 연구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17일 남유진 시장 일행은 위남시를 방문, 위남시와 국제우호도시결연을 체결하고 북경에서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 찰기위(彭克玉)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차이밍자우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과 면담을 갖고 한국형 압축성장 연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남유진 시장은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한중교류 5천년 역사 중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임을 강조하면서 "구미시가 양국 정상과의 교향도시와 우호교류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청송군-진보초-소망의집 결연

청송군은 27일 소망의집(양로시설)에서 '할매·할배의 날'을 맞아 진보초등학교, 소망의집과 결연식을 체결했다.

이날 결연식엔 한동수 청송군수와 황금련 소망의집 원장, 김유영 진보초등학교장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맞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손주와 조부모간의 만남과 사자져 가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하고 손주-할매·할배 결연증서를 교환했다.

김유영 교장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말벗도 되고 음악활동 등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며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날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고향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가서 조부모에 대한 소중함과 자존감을 일깨우고, 손자·손녀들과의 소통으로 외로움을 잊게 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로 삼고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제정했다.

이창재 기자

싱그러운 자연과 정겨움을 느껴볼 수 있는 곳!

친환경 녹색관광 휴양도시 김천

동구대천
양악산 낙수대

자연의자비로움
자연휴양림

자연의자비로움
자연휴양림

자연의자비로움
자연휴양림

www.gimcheon.go.kr

계명대,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콘텐츠 1위

뮤직바이러스 사업 펼쳐 상금은 저소득층에 기부

계명대가 대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주최한 '2014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콘텐츠 공모전'에서 사례부문 우수상(1위)을 수상했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 서비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회는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대구지역 소재 170여 개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계명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은 '뮤직바이러스(해피뮤직) 교육서비스' 사례로 우수상(1위)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본서비스 제공의 충실도 및 부가서비스의 다양성을 통한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 받았을 뿐 아니라 재능기부공헌, 제공인력 연주회 등 차별화된 서비스, 체계적인 사전·사후검사 관리를 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수상 수상과 함께 받은 상금(20만원)은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 저소득층 난방비지원 사업에 힘을 보태며 뜻 깊은 지역



사회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계명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 조성숙 단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들의 정서발달을 위한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하고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체계적인 사전·사후검사 등 사업단의 다양한 노력이 모인 결실이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 사업단의 서비스 우수성을 평가받은 의미 있는 상금이 겨울철 한파로 고생하시는 지역 소외계층 월동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뮤직바이러스(해피뮤직) 교육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음악 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동들의 음악적 재능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할 목적으로 대구지역

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월 4회 전문음악교육(피아노, 성악) 및 정서순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부모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기발표회(연 2회)를 열어 소외계층 아동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고 음악적 재능을 발굴,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문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들로 구성, 1:1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인당 교육비용이 월 19-20만 원이지만 교육생 본인은 소득에 따라 2-4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계명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은 2009

년부터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의 재정지원을 받아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인 '뮤직바이러스(해피뮤직)'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1000여 명의 아동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최근에는 대구시 전역(해당지자체: 남구, 달서구, 동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등)에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돼 사업을 대구지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대구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B홀에서 대구시 시군구 공무원, 대구시원단, 관련기관 기관장, 제공인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정하나 기자

동계 에너지 절감 힘쓴다

대구공대 예코 그린캠퍼스 실천

대구공업대학교는 지난 26일 동계 방학기간 중 에너지 절감을 위한 캠페인을 교내 전역에서 시행했고, '동계 예코 그린캠퍼스' 실천을 위해 교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에너지 절감 의식을 고취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대학이 환경부와 그린캠퍼스 협약에 따른 다양한 세부 진행으로 의견을 수렴해 동계 방학 기간에 절수, 절전, 적정 실내온도 설정에 주안점을 뒀다. 부서별 에너지 세이브 목표치를 달성하며,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을 자체 평가할 계획이다.

동계 난방 기간에 1°C 내릴 때 7%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16호) 건물 제한 온도 18°C-20°C를 위해 '사무실 온도 18°C 유지 시스템'으로 설정했다.

건물 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도 중인 스마트 그리드와 마이크로 그리드로 지능형과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난방용 전력과 가스사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전력망 제어로 지금보다 10-15% 절감할 수 있다.

이별나 총장은 "온도 측정기를 부서별로 부착하면서 스스로의 경각심을 높여 절감 효과를 가지자"며 "끄고, 뽑고, 잠그고를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서 동파를 막기 위한 보온재 점검 등 부서별 관리 구역을 정해 캠페인도 시행했다.

정하나 기자



2015년도 소통·화합·희망 나누다

대구한의대 해맞이 행사 주민·수험생·학부모 등 초청

대구한의대학교는 乙未年(을미년) 새해를 맞아 2015년 1월 1일 오전 삼성캠퍼스 한학촌 및 대각정 일원에서 '2015년 해맞이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해 첫날 대구 및 경산지역 인근 주민들과 수험생, 학부모, 입시로 고생하신 선생님 및 산학협력 기업 대표들

을 초청해 2015년 한해동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15년 해맞이 특별행사'는 오전 06시 40분부터 다양한 식전행사와 해맞이 행사,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는 지역의 대표 농악단인 경산 중앙농악보존회의 풍물놀이로 시작으로 소망편지쓰기, 한방차 시음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본 행사인 해맞이 행사는 대북공연,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의 신년인사, 내빈

및 참가자들의 타종식, 소망풍선 날리기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식후행사로 화합의 풍물공연과 떡국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구한의대학교 해맞이 행사에는 새해 소망을 적은 편지를 현장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연말에 되돌려 받는 소망편지쓰기가 이목을 끌었으며, 한학촌에서는 전통 도라지차와 한방차 등을 준비해 해맞이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2013년부터 전국 대학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해맞이 행사는 뛰어난 접근성과 아담하고 빼어난 전경으로 대구와 경산지역 주민들에게 최근 해맞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신경은 기자

구미 상모고 장애학생들 꿈드림카페 수익금 기부

구미 상모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이 올해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구미지역 내 장애인가정을 돕는데 써달라며, 카페 운영수익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들은 구미 상모고등학교가 장애학생들의 자립지원과 바리스타 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cafe 꿈드림' 실습생 14명으로, 지난 26일 이원진 구미 상모고등학교 교장, 양호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개월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커피값 등을 십시일반 모은 5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cafe 꿈드림' 실습생들은 지난해 7월 100만 원, 12월 50만 원, 올해 7월 50만 원 등 매년 상·하반기 수익금 전액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작은 기부, 사랑의시작' 희망2015 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웃돕기 성금모금계좌(농협/731-01-002268/경북공동모금회, 대구/021-05-780444-001/경북공동모금회, 우체국/700674-01-001682/경북공동모금회)로 입금하거나, 경북 23개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방송사로 직접 기부할 수 있다. 12월 26일 기준, 사랑의 온도는 56도다. 김기환 기자

학교 밖 아이들 학업 복귀 돕는다

대구방송통신중 청소년반 모집 일주일에 이틀만 학교 출석 수업 나머지 요일은 가정서 수업 진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청소년 중 학교 밖 아이들이 28만 명 정도다.

일각에선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학업 복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학업중단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과정이 도입된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을 운영하고 있다.(대구고등학교 부설, 2014년 3월 1일 개교)

대구방송통신중학교(청소년반)에서는 일주일에 이틀은 학교에 등교해 출석 수업을 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가정에서 방송·정보통신 수업을 진행한다. 정하나 기자

방송·정보통신 수업을 통해서만 일반 교과를 중심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출석 수업일에는 진로교육과 바른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과수업, 동아리활동, 프로젝트학습 등 활동과 체험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재미있는 학교로 운영된다.

그 결과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이 학교 재취학 프로그램에 잘 적응해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와 각종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A양(15)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2년 이상 자기 방에서만 은둔 생활을 했다.

방송중학교 입학 후에도 교실의 자기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친구들과 눈도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들의 다양한 배려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됐다.

특히 '내림으로 동해까지', '내림으로 부산까지' 등 각각 2박 3일의 도보·자전거 여행의 일정을 소화할 만큼 체력과 인내력을 길러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게 됐다.

대구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하며 일주일에 3일 등교하는 일정으로 201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정하나 기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경북도교육청 '대폭 강화'

경북도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공공 형편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 및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음 등을 100만 원 이상 수수한 경우 무조건 중징계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처분 중 기소유 예나 고소 취하·합의로 종결된 사안 등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따져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배움 열기 가득한 칠곡 어르신 '문화공간'

제12기 어르신 문화대학 수료식 서예·컴퓨터 등 19개 강좌 운영

칠곡군은 지난 26일 지역노인들의 즐거운 배움터인 칠곡 어르신의 전당에서 2014년도 제12기 어르신 문화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칠곡 어르신 문화대학은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건강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노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번 제12기 어르신 문화대학은 태권, 웰빙 기체조 등 건강프로그램과 서예 및 컴퓨터 등 교양강좌를 비롯

한 19개 과정에 5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이 문화대학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전당은 체력단련실과 탁구장, 당구장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상시 개방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문화공간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안상민 기자

구미, 경운대 2015학년도 정시 마감

경쟁률 4.6대1...항공운항학과 최고

경운대학교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18명 모집에 1462명이 지원해 평균 4.6대 1을 기록했다.

항공운항학과는 11.2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물리치료학과(11.1대 1), 간호학과(7.3대 1), 디지털영상전공학과(7.2대 1)가 뒤를 이었다.

이번 정시모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IT, 항공, 보건계열 등 특성학과에 수험생들이 몰려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의 선택을 많이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경찰행정학부 6.6대 1, 경호학부 4.7대 1, 사회체육학과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시모집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19일 발표한다.

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전공), 항공관광학부, 경호학부, 사회체육학과, 항공운항학과 등은 내년 1월 23일 홈페이지 (<http://ipsi.ikw.ac.kr>)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경운대는 최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1, 2단계 연속 선정과 함께 탄탄한 교육 재정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다.

또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선정, 경북산학융합지구 QWL캠퍼스 준공 등 정부지원사업에 연속적으로 선정됐다.

김태선 입학처장은 "장학금 혜택과 창의성



을 겸비한 현장실무형 특성화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취업에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학과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대구광역시 15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

미국의 작가 겸 저널리스트 앤드루 솔로몬(51)이 10년에 걸쳐 쓴 가족에 대한 이야기 '부모와 다른 아이들'(Far From The Tree)이다. 미국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고 뉴유티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이다. 300가족 이상을 상대로 4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인터뷰를 했다. 게이, 청각장애인, 소인, 다운증후군, 자폐증, 정신분열증, 신동, 강간으로 임태된 아이, 범죄자가 된 아이, 트랜스젠더 등 예외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녀들을 말한다. '비정상'으로 치부되는 특징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분류하고자 제안한다.

개인의 특징적 상태는 모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족 안에서, 그리고 넓은 사회 안에서 차이를 헤쳐나가는 과정은 우리 대다수에게 공통의 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

21세기 권리장전급 심리학 / 앤드루 솔로몬

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문제의 보편성을 인지하고 수많은 다양한 가족들이 서로의 유사성을 이야기한다면, 그동안 그들을 괴롭혀 왔던 문제가 다른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본다. 바로 처음에 아이를 갖기로 하면서 상상했던 것과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 문제다. 솔로몬은 '다양성'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준다는 놀라운 명제를 제시한다. 책에서 다루지

새책안내 는 갖가지 특징들은 본질에서 별개이지만, 그로 인해 가족이 경험하는 차이는 거의 모든 장(章)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승리만큼이나 보편적이다. 판대함과 수용, 인내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근간에는 사랑이 모든 편견을 초월할 수 있다는 통찰이 있다. 인간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다양한 사례에서 드러나듯, 인간성이란 없고 보이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조차 매우 인간적일 수 있다. 방치했다면 짐승에 가까웠을 슬한 아이들이 용감하게 대처한 부모들 덕분에 인간성을 발휘했다. 그리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문예관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발표회 이달 3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

대구문화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은 오는 30일 비스홀(소극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발표회가 열리는 이날은 바리톤 이인철의 오페라&가곡, 악기교실(해금, 기타, 색소폰) 수강생들이 무대에 오른다. 수강생 발표회 부제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로 그동안 수강생들이 예술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며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에 대해 짧게 담은 것이다.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꾸준히 '예술아카데미' 수업을 들은 이들이므로 기존 수업 시간대별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첫 무대인 오전 10시 30분에는 '바리톤 이인철의 오페라&가곡' 수강생 발표회를 시작으로 각 발표회마다 1시간 정도로 진행된다. 오후 3시에는 '해금(강사: 대구시립국악단 차석단원 금재현)' 초급반과 중급반이 각각 합주로 무대를 꾸민다. 특히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타악그룹 구담예술진흥회 연주 단원들이 신명나는 타악 퍼포먼스를 선보임으로써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어서 5시 '색소폰(강사: 대구시립교향악단(바순) 단원 박성준)'이, 끝으로 저녁 7시에는 '기타(강사: 센트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현재호)'와 수강생이 함께 무대에 오

른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는 예술 실기 강좌 수강생들에게 무대 연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업에 동기부여를 더하고자 하며, 지난 6월 비스홀(오페라&가곡)과 7월 중정홀(해금), 8월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동편 입구 야외무대(기타, 해금, 색소폰)에서 수강생 발표회를 연 바 있다. 한편 지금 현재 내년 1월 5일부터 개강하는 2015 대구문화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방학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3월 27일(평일 주1회 70분, 12주 과정)로 '바리톤 이인철의 오페라&가곡', '드림으로 배우는 리드윅기', '기타', '해금'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수강문의는 대구시립예술단 예술사업팀(606-6345)으로 하면 된다. 송승관 기자

신해철의 넥스트,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한 영원할 것"



'마왕' 가수 신해철(1968~2014)이 이끈 '넥스트 유나이티드(Utd.)'가 27일 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펼쳤다. 고인의 빈소에서 울려 퍼진 '민물장어의 꿈'을 부제로 내세운 이날 공연은 신해철 추모콘서트였다. 넥스트 역대 멤버들과 동료·선배 가수들이 총출동해 그를 기렸다. 말보다 주로 넥스트·노래 신해철 솔곡으로 추모를 했지만, 몇몇 멘트는 가슴에 묵직하게 파고들었다. <넥스트의 '라젠카, 세이브 어스'를 부른 신성우 = "해철이가 없는 자리지만 해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철이에게 들리도록 가열하게 외치는 거예요." <홍경민과 넥스트의 '코메리칸 블루스'를 부르기 전 추모 랩을 통해 김진표 = "(...) 별 것도 아닌데 멋져 보여, 형 공연을 따라 한 적도 있어 제스처, 형 앞에서는 난 아마주어, (...) 이제는 정말 슬픔 전하지 마세요. 지금 웃고 있겠지, 아니다 랩이 구리다고 웃고 있겠지" <신해철과 '트윈 보컬'로 나섰던 이현섭 3

부 무대에서는 "여러분들처럼 지도 웃고 열심히 해야 할지 몰아야 할지 고민을 똑같이 했어요. 오늘은 마음껏 웃고 떠들고 뛰고 울고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형이 원하는 바일 겁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명인 집을 읽은들 능변가인 해철이 형을 (멘트로) 이길 수는 없죠." "제가 감기몸살이 걸려서 아팠는데 꿈에 해철이 형이 나와서 많이 아프지 말라고 하셨어요." "2년 전에 음악을 그만두고 싶어 형에게 많이 징징했어요. 두 번째까지는 토닥거리주시다 세 번째에는 '이제 그만 징징대라'고 혼내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무대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해요. 형 없어도 잘 놀고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있다고. 이제 그만 징징대고 이제부터 확실히 보여주세요." "해철이 형 명성에 대한 누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울먹였다). 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한 신해철의 넥스트 음악은 계속 울려 퍼지고 영원할 겁니다."

어린이 위한 판소리 앨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냥짜리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냥짜리 이야기'가 나왔다. 국악방송이 제작한 11번째 아이들 노

래 음반이다. 재미있는 옛 이야기들을 창작판 소리로 맛깔나게 엮었다. 같은 제목의 이야기 책(글 서정오·그림 최현목)이 원작이다. 판소리풍 언어로 풀어 쓴 책으로 리듬있는 문장과 풍부한 토박이말이 가득 담겨 있다. 음반에는 책의 5가지 이야기를 5마당의 미

니판소리로 실었다. 음반 전체를 아우르는 한 곡의 주제곡이 더해져 총 6개 작품으로 이뤄졌다. 국악방송은 30일 오전 11시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음반을 공개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 점자도서관 방문해 책 녹음

여성가족부는 26일 김희정 장관이 직원 20여 명과 함께 강서구에 있는 점자도서관을 방문,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 녹음과 타자입력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직원들은 시각장애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에세이집 '길을 묻는 청소년'(윤문원 저) 중 편지글 일부와 그림 동화책 '구름빵'(백희나 저), '꽃들에게 희망을'(트리나 폴리스 저), '지각대장 존'(존 버닝햄 저)을 녹음 제작했다. 더불어 모든 직원이 입력 봉사에 동참해 '칸트의 집', '침대를 위한 인성 콘서트' 등 청소년 도서 시리즈를 제작해 점자도서관에 비치토록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특별한 재능이라 생각되지 않는 것들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나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강서 점자도서관에서 여성가족부 직원들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를 제작하고 있다.

'올빛상' 정혜승·박정희 등 6명

한국여성연극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회장 류근혜)는 여성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9회 올빛상'(올을 울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여성연극인) 수상자로 연기부문 정혜승(왼쪽)·연출부문에 박정희(오른쪽) 등 총 6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술부문에 이미원, 극작부문에 이지훈, 무대미술부문에 구유영(조명), 신인연기부문에 이지혜가 뽑혔다. 1978년 현대극단 '백설공주'로 연극을 시작한 정혜승은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극단 어우름 대표이기도 하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에서 연극영화미디어학을 공부한 박정희는 극단 풍경 대표다. '하녀들', '철로', '예술하는 습관', '음식' 등의 연출로 호평 받았다.

한국서도 '더 인터뷰' 불사름 다 봤다...



불법다운로드 150만 건...

우여곡절 끝에 개봉한 영화 '더 인터뷰'가 국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소니 픽처스 코리아 측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한국에서는 상영하지 않기로 했지만, 영화는 토렌트(불법 복제 파일)와 SNS 등으로 퍼지고 있다. 누리꾼이 제작한 한글자막도 함께 다. 국내 불법다운로드 수를 집계할 수는 없지만, SNS 전파 속도도 '볼 때 볼 사람들은 다 봤다'는 말들이 나온다.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암살'이라는 민감한 소재로 다룬 영화라는 점, 국내 가수 율미래의 곡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이슈화된 점, 개봉을 앞두고 소니 픽처스가 해킹당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 점 등이 관심을 끄는 모양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320여 개 독립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는 제한된 상영관 수도에 개봉 당일 100억 달러(한화 약 1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구글 플레이, 유튜브 무비,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비디오, 자체 웹사이트(www.seetheinterview.com) 등 온라인을 통해 유료로 관람한 인원을 합치면 영화가 벌어들인 수익은 더 많다. 27일 P2P 파일공유 관련 뉴스 웹사이트의 토렌트 프리크를 보면, 불법다운로드 수가 150만 건에 육박하는 등 상영관 밖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인터뷰'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배우인 제임스 프랑코, 세스 로건이 주연했다. 연예인 가십을 다루는 토크쇼 사회자와 프로듀서가 김정은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된다. CIA가 그들에게 김정은 암살을 제안하고 두 사람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촬영에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Sports



체육계 비리 無관용 아웃!

문화체육관광부

비리단체에 국가보조금 안줘...

조직적으로 경기단체 예산을 횡령하거나, 체육인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교수와 학부모들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관용을 배풀지 않기로 했다. 또 체육비리가 발생한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스포츠4대약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스포츠4대약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비리 제보를 직접 접수했으며, 5월부터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스포츠4대약신고센터에는 26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8건이 종결됐다. 접수된 118건 중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2건 외에,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2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25건이 포함됐고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로 처리됐다. 또 합동수사반은 그동안 관련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1000개에 가까운 금융계좌의 40만 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 활동을 벌여왔다.

◇예산횡령 등 회계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조사결과 문체부는 조직사유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을 다수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한택견연맹회장, 국민생활체육택견연맹회장, 세계태권본부총사를 겸직하며 국내 태권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 모씨와 종합사무처의 전·현직 직원 7명이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3억 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차명계좌 63개에 실제 활동 사실이 없는 순회고치 및 심판 수당을 지급했다가 다시 인출하거나, 유명업체와 허위 거래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이 회장의 고가 차량구입, 자녀 유학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또 대한A연맹의 국가대표 지도자 K씨는 7년간 국내외에서 실시한 전지훈련 중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횡령에 관여한 임원과 지도자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할 방침이다.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해제 조치한다.

또 문체부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 위탁 등을 통해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 전수 검사 △무작위 집중감사 실시 △결산 세부내역 공



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승부조작,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는 국가대표 경기력향상비를 포함한 경기단체 국고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방침이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신입생 모집 제한

체육특기자를 상대로 한 입시비리도 다수 적발됐다. 문체부는 입시비리 적발 고교와 대학운동부의 신입생 선발 및 경기 출전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학교운동부의 국외 전지훈련 원적적 제한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 및 내신 성적 반영(대학 스포츠총장협의회 및 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 △도별 학교운동부 포상 및 예산지원 확대 등의 조치로 학교체육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모 대학팀 유도 감독 B씨는 전국 중고연맹전에서 상대팀 고교 지도자들에게 기권, 저주기 등 승부조작을 의뢰해 자신의 아들이 우승 하도록 한 후, 그 실적으로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아들을 특례입학을 시켰다.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특례입학을 위해 조교에게 입학실기시험지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고, 유증업소에서 교수를 접대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단체-지자체, 지원금 투명화

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 집행의 투명화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들이 표준후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를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중앙경기단체 산하 연맹체의 결산 내역은 중앙경기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C협회의 사무국장 P씨는 5년간 개최된 각종 대회의 개최 비용을 부풀려 계상하고 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유치지원금을 포함한 약 1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상시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 신설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4대약 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운영된다.

스포츠4대약 신고, 태권도-조직사유화 가장 많아

문화관광체육부

스포츠4대약신고센터 운영 결과 총 26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종목으로는 태권도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고, 비리유형은 조직사유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문화관광체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스포츠4대약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스포츠4대약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비리 제보를 직접 접수했으며, 5월부터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스포츠4대약신고센터에는 26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8건이 종결됐다. 접수된 118건 중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2건 외에,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2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

한 25건이 포함됐고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로 처리됐다. 접수된 신고를 종목별로 보면 태권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태권도는 최근 승부조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경기종목이다. 축구는 25건, 야구는 24건이 신고됐다.

이어 복싱 18건, 빙상 16건, 펜싱 13건, 궁도 12건, 씨름 12건, 승마 10건 등이 신고됐다.

비리유형은 경기단체 조직의 사유화와 관련된 신고가 전체 269건 중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단체의 수장이 조직을 사유화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에 대한 불만과 신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횡령이 포함된 기타유형은 104건으로 집계됐고, 승부조작은 32건이 접수됐다. 폭력과 성폭력 신고는 15건, 입시비리는 5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엘리트체육분야가 236건의 신고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활체육은 19건, 장애인체육은 14건으로 집계됐다.

삼성, 나바로와 85만 달러에 재계약

프로야구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 타자 야마모토 나바로(27)와 재계약에 성공했다.

삼성은 28일 나바로와 총액 85만 달러(한화 약 9억 3000만 원)의 조건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나바로는 2년 연속 '삼성맨'으로 뛰게 됐다.

나바로는 "다시 삼성 라이온즈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시즌 팀에서 베풀어준 모든 격려와 지원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2015년의 삼성은 더 좋은 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다시 한 번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고 싶은 팀 동료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연말을 맞아 모든 삼성 팬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소원한다. 조만간 팬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장타 능력을 갖춘 톱타자로 맹활약했다.

홈런 31개(공동 5위), 98타점(9위), 장타율 0.552(10위)로 파워를 과시했다. 118득점(3위), 154안타(공동 10위) 등 고른 활약을 보였다. 볼넷 96개로 공동 1위에 올랐으며 멀티히트 경기를 46차례(공동 9위) 선보였다. 도루 부문에서도 25개(11위)로 활약했다.

1번타자인 나바로가 득점권 상황에서 보여준 능력은 놀라울 뿐이다. 득점권 타율 4할7리(1위), 득점권 출루율 5할5푼4리(1위)를 기록하며 팀의 필요한 순간에 가장 빛난 활약을 선보였다.

'산체스 펄펄' 대한항공, 2연패 탈출

V-리그

대한항공이 천신만고 끝에 2연패 사슬을 끊었다. 대한항공은 27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3-2(25-22 22-25 23-25 25-20 15-9) 재역전승을 거뒀다.

최근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에 연거푸 덜미를 잡히면서 추축한 대한항공은 한국전력을 제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시즌 세 번째로 10승(8패·승점 31) 고지를 밟으면서 3위 자리 또한 굳건히 지켰다. 2위 OK저축은행(13승5패·승점 35)과 승점 4점 차.

마이클 산체스가 41점으로 공격을 주도한 가운데 신영수(17점)와 김철홍(12점), 박승식(11점)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한국전력은 3연패 늪에 빠졌다. 9승8패(승점 25)로 여전히 5위다. 주리치(28점)와 전광인(22점)의 공격이 위력을 떨쳤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팀은 대한항공이었다. 대한항공은 18-17의 근소한 리드를 지키던 1세트 중반 서재덕의 서브 범실과 곧바로 나온 황승빈의 서브에 이사로 점수 차를 벌였다.

24-22에서는 김철홍이 전광인의 후위 공격을 블

로킹으로 돌려세우며 세트를 정리했다. 김철홍은 1세트에서만 3번이나 손맛을 봤다.

2세트는 한국전력이 따냈다. 한국전력은 주리치와 전광인의 쌍포로 맞불을 놓았다.

승부처에서는 서재덕의 득점까지 가동됐다. 22-21에서 서재덕이 끝없는 이동 공격을 쫓아 넣자 주리치와 전광인이 블로킹과 킥오프로 25점을 채웠다.

동점에서 맞이한 3세트는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국전력은 전광인과 주리치로 블로킹 벽을 뚫어냈고 대한항공은 산체스의 공격 비중을 높이면서 득점을 쌓았다.

한국전력은 24-21에서 산체스에서 연속 2득점을 얻어맞고 1점 차까지 쫓겼다.

상황을 정리한 이는 전광인이었다. 전광인은 24-23에서 김철홍의 손끝을 스치는 노련한 공격으로 팀에 세트스코어 2-1 리드를 안겼다.

벼랑 끝에 몰린 대한항공은 4세트 초반부터 힘을 냈다. 14-9까지 치고 나간 대한항공은 끝까지 우위를 유지하면서 승부를 5세트로 넘겼다.

대한항공은 5세트 7-8에서 주리치와 전광인의 연속 범실을 틈타 10-8로 전세를 뒤집었다. 여기에 어렵게 받아낸 공을 산체스가 허를 찌르는 연타로 득점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렸다.

한국전력은 신영철 감독의 비디오 판독 카드마저 무위에 그치면서 역전 드라마의 희생양이 됐다.



삼성화재 3연승 '작렬'

V-리그

우리카드 꺾고 단독 선두

삼성화재가 우리카드를 꺾고 단독 선두를 달렸다.

삼성화재는 28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3-1(25-23 22-25 25-15 25-18)로 승리했다.

3연승을 달린 삼성화재는 14승4패(승점 41)를 기록해 선두를 질주했다. 이번 시즌 우리카드와의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이겼다. 통산 8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레오는 무서운 집중력을 선보였다. 매 세트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62.5%의 공격성공율을 선보이며 43점을 뽑아냈다. 또한 개인 통산 3번째 트리플 크라운도 달성했다. 서브에이스가 5개에 달했다.

우리카드는 김정환(26점)과 신옴(16점)이 분전했지만, 레오를 막지 못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특히 블로킹 수에서 8-17로 절대적인 약세를 보였다.

우리카드는 2승16패(승점 10)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1세트에서 김정환과 신옴의 공격이 연달아 터지면서 근소한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17-19에서 김광국의 공격 범실과 레오의 세트 에이스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21-22에서 레오의 백어택과 오픈공격, 지태환의 블로킹으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다. 24-23에서도 레오의 시간차 공격이 작렬하면서 1세트를 잡았다.

삼성화재는 1세트에서만 8개의 블로킹을 함락했다. 반면 우리카드는 1세트에서 단 한 번의 블로킹 득점도 없었다.

우리카드는 2세트에서 반격에 나섰다. 김정환과 신옴이 차분하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레오가 고군분투한 삼성화재를 잡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3세트에서 11점을 기록한 레오의 고공폭격을 앞세워 세트스코어를 2-1로 만들었다.



의료·건강 소식



당뇨·고혈압보험 합병증도 약관 명시해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는 당뇨병 및 고혈압 수술비 보장보험 가입자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병증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고혈압 합병증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분기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약관이 바뀔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을 판매할 때 대부분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한다. 당뇨병 및 고혈압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그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으로만 표기돼 있어 보험 가입자는 어떤 합병증이 보장되는지를 알기 어렵다.

또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 분류코드만 명시돼 있다. 실제로 일부 합병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병증'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보장되는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예를 들어 약관에 고혈압(I11, I12)로 돼 있는 지급기준을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신장질환(I12)'으로 바꿔야 한다.

고혈압의 경우 당뇨병과 달리 일부 합병증(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보장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의사가 진단서 작성시 원(原)질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질병코드를 함께 기재해야 하지만 일부의 사들은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수술 UAE서 '주목'



이대목동병원 이동현 비뇨기과 교수가 최근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014 UAE 한국 의료 홍보회'에서 무수혈 인공방광수술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이 교수의 인공방광수술은 방광 절제 수술시 이전에는 소변 주머니를 차야 했던 방광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소장으로 인공 방광을 만들어 요관에 연결,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인공방광수술은 기존의 소변 주머니를 신체 외부에 만들어주는 수술보다 고난이도의 어려운 수술법이지만 무수혈 수술로 70대 고령 환자는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경 보존 수술법을 통해 성생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UAE 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홍보회는 한국-UAE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한 UAE 현지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 앞둔 고연령 예비 신랑·신부 '웨딩검진' 결혼 전 필수 확인 사항

남성과 여성의 결혼 적령기 연령대가 높아졌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나 예비 신랑은 서로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며 임신, 출산을 비롯해 각종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 비해 성(性)에 대한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치가 정상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와 관련한 질환에 걸릴 확률이 증가했다.

'웨딩검사' 미래 가족 건강 책임진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예비 신부들 사이에서 '웨딩검진'은 결혼 전 필수항목으로 추가됐다.

서울 노원구 키움 강석찬 원장은 "비뇨기과에서 검진하는 결혼 전 웨딩검사는 한 자녀로 만족하는 핵가족화 시대인 오늘날 예비 엄마, 예비 아빠들이 똑똑한 2세를 낳고 싶어 하는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검사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남성웨딩검진은 행복한 부부생활로 가는 첫 단계다. 임신이나 출산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성들의 비뇨기계 질병이나 증상을 조기에 진단해 예비 남편, 예비 아버지로써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검사는 소변검사, 정액검사, 종합혈액검사, 성병검사를 포함해 총 7가지가 있다. 정액검사는 '컴퓨터 정자 정밀 영상 시스템'이라는 의료 장비를 사용한다. 특수 현미경으로 환자에게 채취한 정자를 정확하게 분석해 남성의 불임 가능성을 확인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헌혈자 300만 명 시대 도래...

국민 헌혈률 5.9%

국내 의약품용 혈액 2015년
까지는 자급자족 가능할 듯

국내 혈액사업 사상 처음으로 연간 헌혈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26일 오전 10시44분께 2014년도 헌혈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누적 헌혈자는 1958년부터 총 6487만3045명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전상자 치료를 위한 수혈용 혈액을 공급받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적십자사가 1958년 국립혈액원으로부터 혈액사업을 인수받아 헌혈자 모집을 본격 수행하면서 이룩한 국내 혈액사업의 56년 성과다.

혈액사업 초기 매월이 성행했던 국내의 척박한 혈액사업 환경은 1974년 국제적십자사회의 '세계헌혈의 해' 제정을 계기로 헌혈권장과 매월을 중시하고 순수한 헌혈로 돌아섰다. 연간 헌혈자 100만 명 달성은 1989년, 200만 명 달성은 1995년이다. 300만 명 돌파는 무려 19년 만에 이뤄졌다.

이 같은 기록 달성은 2004년 '혈액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으로 헌혈의 집이 신설 또는 개선돼 개인 헌혈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헌혈률은 약 5.9%로 외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선진국 수준의 혈액검사 시스템 도입으로 헌혈자의 안전확보와 지속적인 헌혈홍보를 통해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저변이 확대된 것도 기록 달성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혈자 300만 시대가 도래 하면서 수혈용 혈액의 국내 자급자족은 물론, 의약품용으로 쓰이는 분획용 혈장도 내년에는 특수혈장을 제외하고는 국내 헌혈로 100%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돌출입, 수술이 최선? 치아교정만으로 충분!

치아교정만으로 얼굴 모양 바껴...

치아교정 열풍이 거세다. 예비 대학생을 꿈꾸는 고3들, 내년 취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이번 겨울방학은 놓칠 수 없는 치아교정의 적기다. 특히,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자신의 콤플렉스였던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치아교정 하나 만으로도 얼굴 모양이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치아교정 환자 중 약 46%가 성인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교정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종류는 많다. 아래턱의 치아와 잇몸이 정상 범위에 비해 돌출돼 있는 이른바 주걱턱형도 있고, 반대로 아래턱이 위턱보다 작고 뒤로 들어가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위나 아래의 턱이 앞으로 돌출해 전체적인 얼굴이 문제가 되거나 어금니를 다물었을 때 윗나와 아랫나가 맞물리지 않고 공간이 뜨는 경우도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치아 이상 가운데 부정교합이라는 것은 치아 기능상의 문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치주질환(풍치)과 우식증(충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부정교합은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좋는데, 그 첫번째로 손꼽히는 것이 돌출입이다.

돌출입이란 코 끝이나 턱 끝에 비해 입이 앞으로 튀어 나온 상태로 편하게 입을 다물기가 어렵다. 이렇게 입이 돌출돼 있으면 웃을 때 잇몸이 과도하게 드러나 보이고, 평소 입을 다문 상태에서는 입술이 두툼하게 나와 있어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느낌과 통풍성립고 화가 난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돌출입을 가진 사람들 중 치아교정이나 수술이냐를 두고 고민하는데 잇몸 돌출증 중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아주 극소수다. 돌출입으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전체 5% 이하이며 나머지는 95% 이상은 치아 교정만으로도 돌출입 교정이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집단발생

2012~2013년 발생 장소

학교>음식점>수학여행 순
오염된 식품·물이 주 경로
극소량도 체내서는 치명적

겨울철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주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성 집단발생은 2012년 69건, 지난해 57건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2012~2013년까지 발생장소별로 보면 학교가 40건(31.8%)으로 가장 빈번했고 음식점 21건(16.7%), 수학여행 15건(11.9%), 군부대 6건(4.8%) 등의 순이었다. 학교와 수학여행이 전체의 43%를 차지해 절반 가까이하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이하인 소규모 발병은 상대적으로 음식점이 많았지만 중·대규모의 경우는 대부분 학교였다.

그밖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요양원에서 1건(0.08%) 발생했으며, 집, 마트, 기업체 등 기타 장소에서 12건(9.5%) 보고됐다. 발생장소

가 확인되지 못한 집단발생은 31건(26.6%)이었다.

계절별로 보면 일러진 바와 같이 겨울철 발생이 40% 안팎으로 가장 높았지만 소풍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가을철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로바이러스는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설사를 일으키는 유행성급성위장관염의 주요 원인 바이러스다. 백신이 없는데다 감염력이 매우 강해 공중보건학적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 전파경로는 오염된 식품과 물이지만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과 구토물, 공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극소량라도 손이나 식품 등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면 증식해 급성 위장관염을 발생시켜 집단식중독을 일으킨다.

더욱이 병원체는 60도에서 30분 가열해도 그 감염력이 유지되고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살아남으며,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는 시기는 물론 회복 후에도 3~14일까지 그 전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개인위생관리가 점점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성 집단발생이 여전히 꾸준히 있다"며 "외식문화가 발달하고 단체급식이 증가하면서 학교나 음식점에서 발생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위생관리와 청결유지에 더욱 힘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주름, 방향·정도 따라 시술방법 달라...

평소 생활습관만 바로 고쳐도
탄력적 목 라인 가꿀 수 있어...

중장년층 사이에서 리프팅 시술이 각광받으며 목주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목주름을 예방하는 각종 기능성 화장품과 미용기구들이 불티나게 판매될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소 생활습관만 바로 고쳐도 탄력 있는 목 라인을 가꿀 수 있다고 말한다.

잠을 잘 때 높은 베개를 베고 자거나 TV를 볼 때 소파에 누워 턱을 괴는 등의 생활습관은 목주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세안 후 화장품을 바를 때에도 목 주위의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얼굴에 사용하고 남은 화장품을 목에 골고루 발라주는 것이 좋고, 틈이 날 때마다 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로 목주름이 3~4줄 이상 깊이 자리 잡았거나 노화로 인해 세로 목주름까지 생긴 경우라면 일반적인 관리로는 없애기 어렵다.

성형전문의 홍종욱 의학박사(세민성형외과)는 "목주름은 보통 노화가 시작되는 27세 전후로 생기기 마련이지만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더 일찍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40~50대에 급격히 가로 목주름(기립성 주름선)이 깊어지고 60대 이후부터는 세로 목주름까지 더해져 질면조목처럼 변형이 온다"고 밝혔다.



목주름을 없애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름이 심하지 않거나 수술이 부담스럽다면 보톡스 시술만으로도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보톡스 시술은 수술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시술방법 또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속기간이 최대 6~8개월로 시간이 지나면 재시술이 필요해 장기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수술요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홍 박사는 "가로 목주름과 세로 목주름이 발달한 중장년층의 경우 안면거상술을 통해 얼굴부터 목 부위의 피부를 전체적으로 당겨주는 리프팅 시술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로 목주름은 턱밑의 피부를 가로로 3cm가량 절개한 후 세로 목주름의 원인인 활경근을 제거한 후 늘어난 피부를 당겨주면 된다"며 "주름이 심하거나 칠면조 목 변형이 생겼다면 수술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군 기부왕' 이기원씨, 성금 2,000만 원 쾌척

㈜제스코 대표이사

지난해 이은 두 번째 '통 큰' 세밀 나눔

자동차용 중소구경 강관 제조기업 ㈜제스코의 이기원(63)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성주드림악단 2014 별고를 장학기금 마련 자선공연'이 열린 성주실내체육관에서 희망2015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쾌척했다.

이번 성금 기부는 지난해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 기부에 이어 두 번째 통 큰 세밀나눔이다.

이기원 대표이사는 성주군에서 '기부왕'으로 통한다.

지난 2000년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노인회와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어르신식생활 개선 및 시설지원금 500만 원을 15년째 기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매년 200만 원씩 성주군 초전초등학교 저소득가정 학생 장학금 후원까지 도맡아오고 있다.

또 2005년 결성된 성주관내 음악동호회 모임인 성주드림악단 단장을 맡아 매년 여러 차례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열고, 그 수익금 전액을 고스란히 기부하는 등 남다른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해왔다.

지금까지 성주드림악단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기부금은 4350여만 원이다. 2012년에는 성주군 초전면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주민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초전인 상'을 제정, 소요되는 재원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클럽인 '경북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14번째, 성주군 첫 번째 회원으로 가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십수년째 나눔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경북도지사 표창, 2009년 경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감사패, 2014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경북

지방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2010년 소구경 강관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인정받아 '동탄산업훈장'을 수훈하고, 지난 5일 소구경 강관 500만불 해외 수출공로와 투병경영을 인정받아 '제51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 강관 기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기업인으로써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원 대표이사는 "성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요긴하게 쓰이길 바라며, 한파와 장기경제불황으로 모두가 어렵고 고단하지만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성주군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누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전해주시는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



께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희망2015나눔캠페인에 성주군 민들과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나눔참여

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2015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 김두상 기자

최강기계공업 등 영천시장학회 기탁 줄이어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

지난 23일 최강기계공업(대표 최은심)에서 200만 원, 영천시 귀농연합회(회장 채상호)에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영천시장학회(이사장 김영석)에 기탁했고, 24일에는 영천시청임고향우회(회장 김형진)에서 200만 원, (주)신정기공(대표 오인식)에서 200만 원, (주)에스엔지니어링(대표 오병훈)에서 200만 원을

기탁했다. 작산동에 소재하며 기계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최강기계공업은 2011년부터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장학회를 방문한 최은심 대표의 "지역 기업인으로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며 지역인재양성과 장학사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2010년 창립해 400여 명의 회원으로 구

성대 귀농인을 위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 기탁 및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영천시 귀농연합회 채상호 회장과 일동은 "영천이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작은 정성을 모아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기탁 배경을 밝혔다.

영천시청임고향우회 김형진 회장과 회원들도 장학회를 방문해 "연말을 맞아 보람있는 일을 찾아보던 중 장학회 사업에 회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뜻을 전했다. 대구 달성군에 소재하는 (주)신정기공 오인식 대표와 고흥군에 소재하는 (주)에스엔지니어링 오병훈 대표도 "최근 영천을 자주 찾아올 기회가 있어 영천의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며 "무엇보다 장학회가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운영되고 있는 것에 감동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김영석 이사장은 "2014년도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들의 뜻과 정성에 감사드린다"며 "2015년도 더 뜨거운 관심으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NH농협은행 안심지점 정혜영 계장, '맴시스타' 탄생



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 고객서비스 최우수 선정

NH농협은행 안심지점에서 근무하는 정

혜영 계장이 최우수 친절 서비스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2014년도 고객서비스 최우수 직원인 '맴시스타'에 선정됐다.

2014년 농협은행 맴시스타는 평소 친절 한 고객응대,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고객 평가 등 은행직원으로 갖춰야 할 친절서비스 역량을 평가해 최우수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표창과 상패 수여, 중앙본부 로비 및 교육원에 사진을 게시하며 국내연수의 특전이 부여된다.

특히 연도 맴시스타는 분기별 선정된 맴시스타와 친절한 고객응대와 전문적인 금융마케팅으로 타의 모범이 돼 추천된 직원 중에서 1, 2차 현지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영업본부와 중앙본부 CS팀에서 엄선해 최종 선발된 50명의 최우수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정혜영 계장은 "저보다 더 잘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다.

김치역 기자

포철고 김지원 학생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포항제철고등학교 김지원 학생(3년·여)이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지원 학생은 30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교육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을 받는다.

김지원 학생은 지난해 대구·경북 청소년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고등부 대상(기획재정부장관상)과 한국경제 청소년 경제체험대회 장려상, 제26회 빛돌백일장 고등부 산문 부문 장원, 제41회 화랑문화제 고등부 산문

부분 금상 등을 가져갔다.

교내 경제동아리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직접 만들고 이끌며 리더십을 갖춘 융합형 인재로서 능력과 성취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하게 됐다.

김지원 학생은 올해 대학 수시전형에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합격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매년 전국 고교생 60명, 대학생 4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지역심사위원의 서류 심사와 중앙심사위원의 현장 실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는 고교부문에 모두 4명이 선발됐다.

한편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학교 중에는 2007년 포철공고 윤대근 학생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처음 받았다. 2009년 포철공고 박영수, 2010년 포철고 김정인과 포철공고 배준우, 2013년 포철공고 박세욱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김지원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대한민국 인재상 관련 기사를 접했다"며 "그들처럼 삶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부족함이 많은 제가 수상 소식을 듣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김대유 경북도관광공사

신임사장 선임

경북도관광공사는 26일 제2대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에 대구은행 부행장 출신 김대유(54)씨를 선임했다.

경북도관광공사는 김대유 신임사장의 선임 배경에 대해 부채감축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조직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최적인자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대유 신임사장은 37년간 민간 금융사에 종사한 자산 관리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금융권에 근무하면서 폭 넓은 인맥을 활용해 갑포·안동 관광단지 대한 효율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자 발굴로 경영정상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신임사장은 청송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계명대학교(경영학)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77년 대구은행에 입행한 이래 홍보실장, 일선 영업점 지점장, 마케팅통합부 부장, 공공금융부 부장 등을 거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공헌부 부행장을 맡아왔다.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사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상임이사가 사장직 무대행을 해 왔으며 11월초 시작된 사장 공모에는 모두 12명이 응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김 신임사장을 포함한 최종 2명을 임명권자인 경북도지사에게 추천해 김 신임사장이 선임됐다.

윤용찬 기자

손창익 영천시 공무원

'농촌재능나눔'으로 국무총리 표창

2014년 농업분야 수상 북물

손창익(56·남) 영천시 농축산과 농업행정 담당이 29일 농촌마을대상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손 담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14년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액국비로 취약계층 7가구의 주택수리 등의 활동을 펼치며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1회 행복마을 콘서트를 화산면 가삼리에 유치해 문화예술인의 농촌재능나눔을 촉진하고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경험의 기회를 마련해 실행하는 농촌만들기에 이바지 했다.

한편 영천시는 올해 경북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평가 최우수, 경북 시·군 농정평가 우수, 식량시책 평가 우수, 한국농업기술보급대

상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는 등 각종 농업분야 평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또 경북농업명장 김원주씨(살구), 경북농어업인대상 전제대상 이철형씨(복숭아), 아시아와인트로피 대회 금상 박진환씨, 경북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상 화산면 화산2리(이장 조재호), 농촌인력복지 부문 도시사표창을 받았으며 수상하는 등 차별화된 선진농업도시 영천을 확실히 알렸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 모든 것이 직원 및 농업인들이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며 "2015년도에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오늘... 생각한다

■ 차욱환의 세상이야기

격랑의 2014년 매듭달에



차욱환 주필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다. 갑오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갑오년이 '청마(靑馬)'를 의미한다고 해서 젊은 말의 역동적인 한 해로 기대에 부풀었지만 재난이 중첩되면서 아픔으로 얼룩졌고 사회적으로도 각계각층에서 충격적 사건이 잇달아 실망과 분노로 점철된 한 해였다. 너무 섬뜩한 사건이 잇달아 남은 며칠이라도 제발 달 없이 조용조용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거미줄처럼 얽힌 한 해였다. 다사다난 정도가 아니라 삼각파도에 갇혀 숨 한 번 제대로 못 쉰 지옥의 한해였다. 무엇보다 졸지에 300여 명의 목숨이 사라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몇 달 동안 세월호로 인해 번민하고 우울했다. 침묵하고 조심했다. 그리고 건국 이래 초유의 대형사건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정부에게 절망했다. 아직도 아홉 사람은 실종 상태이다. 더구나 기막힌 일은 단 한 사람도 침몰한 세월호에서 구하지

못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제까지 대형 사고를 술하게 겪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연각 화재 대구지하철화재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은 있었다. 그러나 배가 기울어져 침몰하기 까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어느 누구도 배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정부도 명령하지 않았다. 헌법34조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엄숙한 명령을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역사는 달라져야 한다. 달라질 것이다'라고 다짐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참담한 현실이다. 혹독한 추위 속에 떨며 돌아 올 기약 없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팽목항의 아홉 가족들도 점차 국민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

세월호의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 군 구타사망사고와 군 성추행사건, 고위공직자들의 추잡한 성 문제, 정윤희와 박지만의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으로 TV체널마다 얼마나 시끄러웠던가. 짜라시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의 '심상시'소동은 잠마철 천장의 빔볼 자국처럼 상처를 남겼다.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상습적인 욕지거리와 성희롱,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의 '똥콩 회향' 사건이 전국을 휘젓더니 세월호와 서 방점이라도 찍듯이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을 놓고 협박하는 초특급 안보사태까지 불거졌다.

며칠 있으면 지위와 재력 노소에 관계없이 모두 한 살 더 먹게 된다. 세월과 강물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 송나라 대 표적 시인 도연명(陶淵明)의 '잠시'에 나오는 마무리 구절로 시간을 소중하게 아껴 쓰라는 것이다. "젊은 시절은 거듭 오지 않으며(盛年不重來), 하루에 아침을 두 번 맞지 못한다(一日難再晨),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及時當勉勵),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歲月不待人)" 세월은 가고 나면 돌아오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니 매사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겠다. 더구나 국사에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의 천금같은 2년이 흘러갔다. 남은 3년은 확연히 달라야 한다.

새해에는 올해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랍처럼, 진흙에 더럽혀 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며칠이 중요하다. 이제 매듭 하나를 묶을 때가 됐다. 아픔도 슬픔도 통탄도 증오도 매듭지어야 할 마지막 달, 매듭달이다. 낙엽이 회한과 아픔과 설움을 안고 서로 곱삭하며 걷게 타들어가 옥토의 자양분으로 거듭 나듯이 희망의 싹을 틔울 엄숙한 시간이다. 잘못을 고백하고 너그려이 포용하고 두 팔로 겨안아 화해하는 것도 매듭달에 할 일이다.

올미년에는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아픈 가슴을 안고 밤을 지새울 일도 없으며 그 누구를 원망하는 일도 없기를, 이웃의 아픔도 외면케 했던 지독한 집착도 내려놓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고 싶다.

■ 나의 제언

농촌지역 노인들 농약 음독 많다



이승언 의성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센터장

자살사망은 나이불문하고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가 한국의 현주소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 자살로 인한 사망은 전직대통령에서 젊은 연예인들까지 우리나라는 자살시상주의자들의 나라로 방불

케 한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자살자 증가 및 독거노인 노인세대수 증가에 따른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살충동은 경제적 어려움, 질환, 장애, 외로움, 가정불화 등이 주요 원인이며, 특히 농촌지역은 농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음독(제초제) 자살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자살 장소는 주거지의 비율이 높다.

의성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 의성군 관할 약물 음독환자 출동건수를 파악한 결과 12월 현재까지 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약(그라복손)을 사람이 조금만 먹게

돼도 구강점막, 혀, 인후부, 식도 등이 모두 세포의 과사과 일어나 표면이 헐어버리고 위장관에 심한 자극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신장기능 및 SOD를 억제해 호흡기를 파괴하고, 폐섬유화를 진행시켜 호흡부전 상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약물음독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농약이 묻었을 때에는 옷을 벗겨야 하고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기도를 확보하고 토할 경우에는 목을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먹은 약물의 양과 종류를 정확히 알아보고 약병을 잘 챙겨서 병원에 가지고 가야 초기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농촌 가정에는 곳곳에 방치된 농약 관련 용품들로 항상 농약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음주 및 환기에 극단적인 선택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고 있어 자살예방 등 대처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 고졸채용 그새 흐지부지되나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내년에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2016년까지 공공기관 채용의 40%를 고졸로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 됐다. 유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람직한 것이라면 연속성을 지켜야 하는데 직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너무 쉽게 폐기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302개 공공기관 전체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1만 7187명으로, 올해 채용 규모인 1만 6701명보다 2.9% 증가한다. 신입 채용 규모는 2011년 9538명에서 2012년 1만 4452명, 2013년 1만 5372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내년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규모는 134개 기관 1722명으로 전체 신입직원 채용 규모 1만 7187명의 10% 가량이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규모인 1933명보다 10.9%(211명) 줄어든 수치다.

이명박 정부가 고졸 구직자에게 고학력자와 차별 없는 '열린 고용'을 약속하며 고졸 채용을 독려하면서 2010년 470명, 2011년 684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고졸 신입사원은 2012년 2042명, 2013년 2122명으로 대폭 늘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비

중을 차차 늘려 2016년까지 40%를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 수행이 적은 외국어 등 일반 시험과목 배제, 고졸 인턴경험자 정규직 채용 확대, 대졸지원자 등 학력 하향 지원자 서류전형 배제, 임금·승진 차별 철폐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우대 등으로 옮겨가면서 고졸자가 소외당하고 고졸 채용 목표도 흐지부지된 것 같은 느낌이다. 고졸채용에 적극적인 주요 은행도 지난해에 채용인원을 전년보다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고졸 직원 채용규모가 전체의 20% 가량이 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강도의 문제이다. 공기업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고 한발 앞서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졸채용 확대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대학입시에만 매달리는 비정상적 교육열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치유, 청년층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고졸채용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좋은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달성군 재정운용 3년 연속 최우수 쾌거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3회계년도 지방재정 운영전반에 대한 분석'결과, 달성군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단체(가 등급)로 선정됐다. 대수톱장은 것으로 여기기 쉽겠지만 경북 성주군과 칠곡군이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시·군·구는 성주, 칠곡 등 22곳으로 평가된 것을 감안하면 득점 침체해야 할 경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3년 연속 최우수의 대기록이다.

행정자치부가 23일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년 지방재정운용을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의 분야별로 평가해 시도는 3등급, 시군구는 5등급으로 순서를 매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드러낸 살림살이의 성적표인 것이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선심성 전 시정 사업에 몰입하면서 형세를 낭비하는 구태의연한 지자체가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자료이다.

이 성적표에서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대전 울릉·제주도 가 등급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광역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3등급(가, 나, 다) 중 나 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평가는 중에는 구미, 경산, 달성군 등 23곳이 5등급(가-마) 중 가 등급인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어 안동, 군위, 의성, 봉화 등이 나 등급으로 조사됐다.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시·군·구는 성주, 칠곡 등 22곳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달성군은 어느 지자체도 기록하지 못한 최우수 등급으로 3년 연속 평가 받는 쾌거를 기록한 것이다.

달성군은 이미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2013년 말 사실상 부채가 없는 지자체로 인정받은바 있는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구지역에서 유일한 최우수 등급이자, 전국 유일의 3년 연속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됐다는 것은 달성군민의 자랑스러운 대구시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명분 재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정밀 점검해 대안을 내놓아야 하며 지자체 또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신문맛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대표 김성용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욱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정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4,000원 1부 7,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작은 불씨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상냥, 라이터는 두고 가고...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취사 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꺼진 불씨도 꼼꼼하게 다시 보고 남은 불씨도 꼭 청거주세요.
산불이 사라지면 산길이 살아납니다.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www.better.co.kr **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 054-850-7772** **산불신고 : 054-859-1115**

Balenkey
 골프웨어 아웃도어 발렌키

Fashionable & Stylish Trekking Outdoor



발렌키 입고

장원정 From 2014
 발렌키전속모델

따뜻한 겨울 되세요!

GOLF/OUTDOOR **골프/아웃도어 브랜드**

겨울신상품 80~40%

대리점문의전화 : 053-552-7088 **단체복 주문받습니다**